

전하기 위함이다.

## 2. 뜻과 조직

### 함께 희망하기

2015년 4월 지역에 청소년자치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을 열었다. 청소년자치연구소는 이미 수년전부터 개인 무허가 연구소<sup>28)</sup>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들꽃청소년세상 법인과 함께 하게 되면서 지역 중심으로 실무를 담당할 활동가들이 모였다. 오성우, 최미나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2015년 2월에 후배가 운영하는 서천의 청소년시설에서 계획서를 함께 작업했다. 내 안에서는 이미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함께 하는 선생님들의 고민과 의견이 중요했다. 내가 생각하는 활동(뜻)을 제안하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며 가닥을 잡아 갔다.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 사회가 변화하고 좋아진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이 있다. 우리가 집중하는 당사자는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사회는 나이 많고 전문가라고 말하는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을 대신해서 만들어 가는 사회가 아니다. 청소년들 자신이 성장하며 일구는 사회를 뜻한다. 청소년들 자신이 참여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과정이 중요하다.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의 새로운 인식과 사고, 더불어 성찰이 일어나게 된다. 사회가 더디 변할지라도 조금 더 좋은 사회를 꿈꾸며 활동하는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 청소년친화적인 안전한 마을공동체

청소년자치연구소와 달그락달그락은 NGO이다. 지역사회에 청소년들 중심

28) 청소년자치연구소는 일하던 단체를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한 일터다. 나 밖에 없으니 내가 소장이었던 기관이다. 사무실은 지인 분 일터에 책상 하나 넣어 놓고 활동했었다. 당시까지 법인이 아니어서 무허가라고 칭했다.

으로 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희망하며, “청소년 친화적인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목적으로 설정했다. ‘안전’이란 화두는 청소년관련 영역에서 태안해병대 캠프사고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청소년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을 내세워 관리 통제하는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도 보였다. 진짜 안전이란 관리 통제로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수많은 사건사고에서 알게 되면서도 관리통제를 내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불안전함에서도 청소년들 자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게 청소년 안전의 목적이야 한다. 단순히 사고 현장에서 관리통제의 대상으로서 안전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전이란 단순히 위기에서의 탈출만이 아니다. 여기에서의 안전은 지역사회 전체에 있는데, 사람들의 관계가 ‘정’이 흐르는 공동체성이 살아 날 때 안전할 수 있다. 공동체의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청소년들 또한 지역사회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참여가 일어나는 공간은 청소년들의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가깝고 따뜻한 곳이기를 원한다. 친화적이란 친근함이 있는 곳으로 해석했다.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이 그들 삶의 공간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친화적인 공간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공간이다. 어떠한 공간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관계 하지 않는 공간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의 정이 흐르는 따뜻한 공간도 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입시기계’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게 아닌 참여하는 관계 주체로서의 공간을 꿈꾼다. 지역사회가 영문 그 뜻 자체로 공동체적 가치가 살아나는 곳이기를 희망한다. 청소년들이 시민으로 함께 하는 공간이다.

### 독수리 5형제와 청소년자치

활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었다. 구체적인 활동들을 정리해 보니 ‘연구, 네트워크, 진로활동, 사회참여, 공유변화’ 등이 된다. 이러한 활동에 집중하며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참여수준을 높이는 과정에 지역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림을 그렸다. 참여수준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년자치가 일어난다는 그림, 청소년참여를 넘어 자치하는 세상이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두 명의 선생님들이 더 합류했다. 원래 계획으로는 예산상 실무를 담당할 활동가는 네 명이였다. 어느 날 밤 병욱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새롭게 일하는 곳에 자신도 돕겠다고 했다. 독일 유학을 12월에 떠나는데 그 때까지 일을 돕겠다고 하고 참여했다. 병욱이는 고등학생 때부터 함께 활동을 하던 청년이다. 흔쾌히 함께 하자고 했다. 이경민 선생님은 겸임교수로 강의하던 대학에서 만난 제자다. 3년여 간 대학에 개설한 청소년 관련 과목에 참여하며 열심을 내며 공부한 학생이었다. 졸업 후 바로 함께 하자고 제안 했다. 이미 함께 활동하기로 한 오성우 국장은 이전에 관장으로 일했던 청소년시설에서 신입으로 입사했던 사회초년생 사회복지사였다. 대학원 졸업 후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이 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함께 했던 신뢰하는 활동가다. 최미나 선생님은 '청년의꿈 과외수업'에 참여했던 청년이었다. 4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진행해 온 '길위의청년학교'와 '청년의꿈 과외수업' 등 청년들과 연관된 활동 들을 운영해 왔는데 이 활동에 참여했던 청년이다. 집이 대구인데 함께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 교사로서 고민도 있었으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다시 공부하고 현재에는 청소년인권에 관심이 많은 친구다.

병욱이가 1년여 활동 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난 이후에 이준혁 선생이 합류했다. 이 친구는 몇 년 전 대학생 때에 학습여행 한다며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나를 찾아왔었다. 그 때 인연이 되어 달그락에 찾아오기도 하고 잠시 활동을 돕기도 했다. 지역을 살피니 전북 군산, 대구, 충남 금산, 제주 등지가 되었다. 영호남과 충청, 제주를 아우르는 독수리5형제 된 느낌이다.

### 청소년과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

청소년운동을 한다. '운동'은 뜻과 가치가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사회 변화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이루어진다. 이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뜻을 세웠고 실무를 담당할 활동가들이 모였으니 우리의 뜻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해야 했다. 실무진과 함께 하는 세 개의 위원회와 자원활동가 그룹이 조직 되었다. 직접 활동은 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되었다.

활동을 시작하면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봤다. 연구소 사무실과 달그락달그락 공간을 위해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만원 하는 사무실을 구했다. 초기 비용은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후원자께서 법인을 통해 5천만 원의 거금을 보내 주셨다. 이 돈으로 보증금 및 월세와 기본적인 리모델링 비용을 해결했다.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함께 청소년운동을 지원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신뢰하는 분들에게 제안을 드렸다. 모두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위원회 구성하면서 몇 분이 또 다른 분들을 추천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조직되었다.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청소년(전문)위원회와 아동청소년관련 전공자 중심의 대학교수 등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연구위원회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현재는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통합되어 청소년위원회가 되어 두 개의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청소년위원회에서 연구소와 달그락의 제반활동을 논의 하고 지원을 한다. 초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집기와 내부 물품 등의 구입 과정에서도 이천 여만원 가깝게 후원해 주셨다. 대학 교수들 중심의 연구위원회도 조직되었는데 매달 달그락에서 열리는 시민청소년포럼의 약자인 '달달포럼'을 주관한다. 연구자들의 연구가 사장되지 않고 지역 실무진들에게 안내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포럼이었다. 2015년 9월부터 매달 청소년진로, 청소년성, 청소년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청소년자원활동가 꿈청지기는 청소년에게 관심 있는 지역의 청년과 기성세대들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활동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고 수료한 분들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조직되었다. 최정민 회장님이 선출 되었으며 매주 한 두 차례씩 달그락에 나오셔서 봉사도 해 주시고 청소년들도 만난다. 특히 달그락달그락 에서 열리는 청소년멘토링 활동인 '달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일찻집을 열어 손수 수제청을 담기도 하시고, 차를 만드셔서 수익금 전액은 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기도 한다.

### 청소년들 조직하고 활동하기

초기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사회참여와 진로활동을 먼저 시작했다. 3월부터 4월까지 청소년사회참여아카데미와 청소년경제 및 진로를 중심으로 하는 신용경제아카데미, 창업마케팅아카데미를 기획해서 홍보했다. 각 아카데미당 청소년들이 40여명 정도가 함께 했다. 한 달반 정도에 매주 토요일오전 9시부터 6시 내외까지 관련된 전문가 분들을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등지에서 모셔 청소년들과 소통하게 했다. 이 중 아카데미를 수료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자치조직이 되었다. 각 자치기구 인원은 20명 내외였다.

진로 및 경제활동 청소년들은 '우리 동네 청소년CEO'라는 조직이 되었고, 움부즈퍼슨과 기자단 청소년들은 측면이라는 뜻의 ASPECT, 이 후 게임과 관련한 자치기구가 조직되어 '진로게이트'로 불린다. 경제와 사회참여 자치기구는 그 안에 각 팀을 두어 팀장이 있고 각자 운영하는 연합하는 구조로 연계 되었다.

청소년CEO는 각 팀별 향후 계획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후 활동을 시작했다. 대체적으로 상품개발, 마케팅을 통한 판매가 주된 활동이었다. 달그락달그락 및 야외에서 프리마켓 을 진행했다. 청소년기자단인 ASPECT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검토 토론하며 정책제안활동을 진행했다. 과정 중에 도 내 일간지인 새전북신문사와 연구소가 협약(MOU)을 체결하여 신문에 달그락 달그락 지면이 만들어졌다. 일간지가 지역 NGO에게 매 주 한 면을 할애한 획기적인 일이었다. 물론 연구소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매주 기사와 글을 연재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되었다. ASPECT 청소년들은 기자단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다.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전문가들을 찾아 나섰다. 청강문화산업대의 게임관련학과 교수진, 게임회사 전문가 그룹을 미팅하고 대화했다. 스타트업 회사들을 방문하여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 하였고 연말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게임박람회인 지스타(G-Star)에도 참여 하였고 마지막 일정 중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하기에 이르렀다.

###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 대표자회의

1년여 만에 달그락의 청소년자치기구 발대식과 대표자회의 선거도 했다.

기호2번의 김정운 청소년이 회장으로 출마한 두드림 팀이 선출되었다. 청소년대표들은 달그락을 대표하면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실습생 면접부터 포럼 주제발표까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1년 전 청소년 0명이었다. 지난해 청소년사회참여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고, 1년 이 지난 현재 15개의 자치기구 128명이 실제 활동을 하고 있다. 1년 이상 꾸준히 활동한 ASPECT 청소년기자단 청소년들이 달그락달그락의 최초 인증 자치기구가 되었다.

청소년대표자회의 선거하고 각 자치기구별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활동 안내와 이번 해 2016년 달그락 주제인 "지역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의 주제로 발표했다. 5시가 넘어 가는데도 초 집중하면서 함께 하는 청소년들의 눈망울을 보면 왠지 모를 몽클함과 감동이 있다. 발대식과 선거를 치르기 위해 청소년들이 두 달여 동안 선거운동과 각 자치기구별 활동 계획 회의 등 준비가 있었다. 특히 선거를 위해 각 후보별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등 조직을 이루어서 선거운동을 진행했었다.

### 3. 달그락달그락

#### 달그락은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소리

군산의 명산동 전북은행 사거리에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이 있다. 오후 4시경 중학생 한명이 카페 같은 공간인 달그락에 들어와 소파에 앉는다.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기도 하고 안쪽에 있는 사무실을 기웃거리며 사진을 찍기도 한다. 잠시 후 또 다른 친구가 온다. 책을 좀 보다가 사무실에서 나온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는다. 얼마 후에 있을 청소년포럼의 발표문을 노트북으로 정리하다가 다시 지역 어른과의 인터뷰 영상 편집을 한다. 시험기간이면 책을 펴고 공부를 한다. 기자단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취재하여 기사를 쓴다. 그 옆에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청소년CEO 친구들은 끈을 잘라 팔찌를 만들면서 함께 하는 친구들과 대화한다. 평일 '달그락달그락'의 일상이다.

이 공간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달그락달그락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으로 청소년들에게 만큼은 모두가 무료인 공간이다. 달그락은 작고 단단한 물건이 잇따라 부딪쳐 흔들리면서 맞닿는 소리다. 달그락이 두 번인데 앞에 달그락은 청소년이 내는 소리고 뒤에 오는 소리는 청소년들의 부딪침에 의해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소리다. 달그락달그락은 청소년들의 움직임에 의해 그들이 꿈꾸는 세상으로 변해 가는 과정을 이루고자 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어느 날 저녁에 여러 명의 비청소년 성인들이 달그락달그락의 한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신다. 그리고 “진짜 진로교육”을 위해 군산에서 가치와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섭외하기 시작했다. 이후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과 일을 소개하는 성인들이 참여한다. 달그락달그락에서 열리는 진로콘서트라서 일명 ‘달톡콘서트’의 시작이다.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고 고민하는 교수들도 모였다. 이들이 서로 모여 논의하다가 매달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고 현장 실무자들과 토론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달달포럼’의 시작이다. 달그락에서 매달 열리는 포럼이라는 뜻이다.

어느 토요일엔 달그락으로 지역 어르신들과 청소년들, 부모세대들이 모였다. 각자가 신청해서 만난 이들은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종종 주말에 만나 식사도 하고 여가도 즐긴다. 얼마 전에는 달그락에 모여 그간에 집들 소식을 공유하고 사진촬영을 했다. 세대를 넘어 소통하고 관계하는 과정이다. 최근에는 “군산 지역 어르신의 삶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응원합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그대 어떻게 살아 오셨나요?”라는 소책자를 청소년들이 발간했다. 청소년들이 방학동안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엮은 소책자다.

청소년자치란 무엇이기에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이런 저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자치는 자기 삶에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군산지역을 만들고자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돕는 곳이 청소년자치연구소다. 바로 달그락을 운영하는 주체다. 청소년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움직이는 청소년자치연구소는 이미 청소년 자체이며 청소년 운동체이기도 하다.

내가 사는 군산이 청소년에게 살기 괜찮은 곳인가? 청소년자치연구소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청소년연구, 네트워크, 사회참여, 진로지원, 공유변화 등 여러 방식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시민들의 힘을 더해 청소년들에게 친화적인 지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청소년 지역여행기-청소년참여포럼

‘청소년지역여행기’는 ‘청소년들이 지역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기록’이라는 뜻으로 달그락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청소년참여 포럼 제목이다. 7~8개월여 연구소에서 진행한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참여 포럼’을 기획하여 청소년들 중심의 포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 중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이 되기 위한 세부 사업을 7개 영역으로 제안했고 이에 대한 2015년 시범사업을 연구소에서 진행했다. 경제, 건강, 안전 등의 영역에 따른 세부 사업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8개월여 간 활동에 참여했던 연구소의 자치활동을 했던 청소년들과 두 달여간 학습과 토론이 있었다. 활동의 경험이 있고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나름의 토론과 학습이 이루어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추진위가 구성되어 다양한 영역과 계층의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7개 분과를 구성하여 토론이 이루어 졌다. 각 분과에는 전문가 분들을 배치하여 청소년들 토론을 지원하게 했다.

청소년들만의 토론 이후 지역 국회의원을 모시고 청소년들이 토론한 내용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이후 군산시청의 관련과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을 초청하여 청소년들이 토론하여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달달포럼<sup>29)</sup> 가운데 청소년정책을 주제로 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이 날 발표하고 제안한 정책제안서는 군산시에 보냈다. 달그락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내용 중 군산시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어린이청소년 정책창안대회, 어린이청소년 시청 홈페이지,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진로체험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자전거 전용도로 확장 등 8가지 내용을 수용하여 진행하기로 한다는 관련 공문을 연구소에 보내 왔다.

29) 달그락에서 달에 열리는 시민청소년포럼이라는 뜻으로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포럼이다.

### 전국 최초의 청소년자치권 조례

전국 최초로 "군산시 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가 통과 되었다. 지역 시의원과 달그락달그락의 청소년들이 TF를 구성하여 두 달여 간 토론과 논의 끝에 만들어진 조례다. 조례 최종 심의하는 자리에 두 달여 함께 했던 몇 명의 청소년들도 함께 지켜봤다. 앞으로 군산시는 청소년들을 위한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배포하고,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앱으로 정책이나 건의 사항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안 받은 내용은 15일 이내에 반드시 시에서 청소년에게 답변을 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관련한 청소년정책제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후반기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정책 제안 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이며, 기본이념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청소년참여포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했고, 몇몇 청소년들만 참여해서 제안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청소년들 간의 내부 토론이 있었다. 지역 시의원 중 청소년들에게 진정성 가지고 활동 하는 분이 계셨는데, 대화 하다가 조례를 청소년들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셨다. 바로 청소년들과 논의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며 하겠다고 하고 달그락 내부적으로 TF 구성하게 되었다. 두 달여간 청소년들과 시의원의 논의 끝에 조례가 만들어 졌다. 조례 통과를 보기 위해 학교에서 외출증 끊어 와서 참관한 청소년들과 진정성 가지고 무언가 해 보려는 시의원의 합작품이다.

### 달그락 청소년 프리마켓과 지역사회

진로를 고민하며 경제 활동하는 청소년 자치기구가 있다. 주로 프리마켓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음식과 액세서리 등 물품이 다양하다. 공유경제, 협동조합, 마케팅 등 교육도 받고 자치기구별 나름의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경제활

동 또한 지역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자치기구별 지역에 관련 전문가 분들이 멘토로 연결되어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활동을 안내하고 소통하는 일들의 기반이 된다. 다음은 프리마켓 시연회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기록한 이준혁 선생님의 글이다.

# 저번 시연회의 경험을 토대로 각자 역할을 정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판넬을 들어서 보여드리는 역할, 아띠의 활동을 설명하는 역할, 쿠키를 드리는 역할, 평가 판넬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와주는 역할 등, 각자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역할을 선택하고서 간단하게 리허설도 했습니다. 달그락 밑에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시는 아주머니와 어르신이 첫 시연회의 손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물쭈물 어찌할지 난감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세히 설명 잘해드리고 쿠키도 건네 드립니다. 저번 첫 야외 시연회를 진행하며 저울을 빌려주시기도 했고 첫 쿠키 맛 봐주셨던 카페 사장님께도 찾아갔습니다. 이번 쿠키도 더욱 맛있다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의 활동을 이해하시고 도와주려 하시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옆 카페에도 한 번 찾아갔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저번 시연회에 이어 또 다시 찾아오니 친절히 청소년들을 반겨주셨습니다. 카페에 계신 어르신 손님께도 쿠키 하나 드리면서 설명도 하고 스티커를 붙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일 하네~" 라는 어르신의 말씀에 아띠 친구들은 씩긋! 기분이 좋아집니다. ... 중략 ... 청소년들이 판넬과 쿠키를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이 궁금하셨는지 뭐하고 있냐고 주민 분들께서 여쭙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띠 친구들이 우루루 물러 달려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설명합니다. 앉아 계신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쪼그려 앉아서 이해되실 때까지 한 번 두 번 설명 드리는 청소년의 모습에서 어른공경을 느꼈습니다.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예의 바르게 시연회를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 오늘은 고소한 떡 냄새로 동네를 휘저은 날입니다. 이사를 오면 동네에 이사 떡과 함께 인사드리는 것을 본 때 며칠 전부터 청소년 프리마켓의 홍보팀의 은서와 은진이, 용범이가 프리마켓 오픈식 떡을 드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 중략 ... 이건 카페에 들러 떡 드리면서 저희한테 주신 커피! 떡 돌리면서 은서와 은진은 캔 커피 받았습시다. 군산에서 오는 정을 느끼게 되네요. 빵집과 상점, 카페, 공방 등을 돌며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이 분들께 청소년 프리마켓 설명과 함께 떡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니 다들 반겨주십니다. 어디서 하냐는 질문에 포스터로 위치 알려드리니 홍보지 붙여주겠다고 직접 가져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열심히 떡 돌리고 있는 은진이와 은서!! 이렇게 땀별이지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동네 아저씨들 친절해서 좋았다며 웃음꽃 피니다.

###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역을 통하여

달그락의 청소년운동은 가능하면 지역과 함께 하려고 한다. 지역이라고 하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지역은 공동체이고 공동체의 주체는 사람이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친숙한 관계에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을 뜻 한다. 가능하면 지속가능한 활동들을 펼치고 끈끈한 인간 관계가 많아지면서 폭이 넓어지는 것을 지향한다.

청소년진로활동도 지역 중심으로 청소년들, 그리고 주민 분들과 함께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에 집중한다. 달톡콘서트가 그 일이다. '달톡'은 달그락에서 열리는 청소년진로 콘서트의 약어다. 자신의 직업에 어떤 가치와 철학이 있는 분들을 안내 받는다. 실무진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되어 있는 '달톡콘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섭외된 분에게는 기자단 청소년과 그 직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 사전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 내용을 토대로 달톡콘서트 컨셉이 잡힌 이후, 강연자는 달그락달그락에 와서 20분 내외를 강의한다. 그리고 참여 청소년과 주민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녹취뿐만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된다. 참여하신 분에게 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여쭙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돕겠다고 하면 관심 있는 청소년들과 연결 짓는다. 이 분들의 강연영상과 글은 온라인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후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안내해 주면 그 시간을 청소년들에게 알리려고 내부 시스템 구축중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온라인을 통해 관계하고 직접 멘토들을 방문하여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이후에도 청소년들과 멘토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달톡에 참여하는 멘토들에게는 이후에도 여건이 될 때 이 분야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 줄 것을 요청하면 현재까지 참여한 모든 분들이 도움 주겠다고 하셨다. 심지어 몇 분은 달그락의 일시, 정기 후원자로 재정적 지원까지 해 주셨다.

달그락 멘토링 활동의 약어로 '달링'을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연다. 지역에 좋은 재능을 가진 분들 중 연구소와 관련되어 삶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기술이나 재능을 안내해 주면서 좋은 멘토역할을 해 준다. 이전에 내가 청소년단체에서 활동 할 때에 토래상담 동아리를

했었던 은주가 현재 작은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토요일 오전마다 청소년들 만나면서 집단 상담이나 프로그램 돕는다. 캘리그래피 부터 네일아트 등의 전문가 분들이 오시기도 하시고, 영어나 역사, 수학 등이 뛰어난 청소년들은 어린이들을 만나서 공부와 함께 좋은 언니, 오빠가 되기도 한다.

꿈청지기는 청소년에 대해 관심도 있고 돕고 싶은 기성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이다. 일일차집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수익금 전액을 달그락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기금으로 지원한다. 청소년들이 필요한 물품이나 활동에 대한 간단한 계획서를 제안하면 꿈청지기 회원들과 청소년들이 논의하여 지원한다. 이 모든 일들이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관계로 이루어진다.

### 4. 따뜻한 한 달을 보내고<sup>30)</sup>

지금도 젊다. 그런데 이 전에 더 젊었던 나이에 작은 청소년시설의 기관장이 되었다. 내 사무실이 생겼고 그 곳을 '관장실'이라고 했다. 지나가던 중학생 청소년이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여기 똥꼬 뚫는 곳인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만들어 졌는데, 나의 생활 패턴은 유사했다.

이전까지 민간단체의 청소년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일을 했다. 지역의 작은 비영리민간 단체의 부장은 대형 재단이나 기업과는 전혀 다른 양태를 띠었다. 단체의 한 부서를 책임지는 담당자이지만 수년 째 부원이 한명도 없었다. 몇 년 만에 부서에 정원 한명 간신히 얻어 부장과 부원 두 명 이서 일하는 부서가 청소년부였다. 활동 기획부터 청소년조직, 위원회, 후원회원, 자문조직 등의 조직 활동, 지역 및 전국 연대활동, 예산계획과 집행, 후원조직까지 한 부서의 일을 혼자서 거의 도맡아 진행해야 했다. 청소년 조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 평일 저녁은 말할 것 없이 주말에도 교회 예배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단체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수년 간 일을 하다가 작은 시설이지만 관장이 되니 직원들이 늘었다. 그런데 내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은 내가 설레발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

30) 마침 글은 이번 해 여름을 보내며 썼던 글로 대신한다.

었다. 현장의 청소년활동가로서 한부서의 밑바닥부터 다양한 일들을 혼자서 수년째 해 오면서,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 관장질(?)을 넘어서서 실무 담당자에게 맡겨도 될 일을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며 움직였던 일이 많았다.

심지어 동아리 등 청소년자치 조직까지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관계까지 직접 챙기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행사나 일이 끝나면 내가 일을 모두 한 것인냥 주변의 많은 이들이 칭송(?)이 자자(?)했다. 일은 함께 했는데 나는 엄청 고생했고, 나 잘났다는 것이었고, 자부심도 있었던 때다. 고민도 많았고, 일도 엄청 많이 한 것 같았으며 치열하게 일했던 것 같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시절. 지금도 큰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그 때와는 많이 다르다.

그 때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못나 보이고 창피하고, 쪽팔리는지<sup>31)</sup> 모른다.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함께 해야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집중해야 할 일이 있고, 연대하고 관계하며 진행해야 할 일이 있으며, 조직이라는 관계적 공간에서는 위치가 있기 마련이고, 수평적 위치에서 각자의 직무가 존재한다. 그리고 활동수준이나 사회적 관계력이 좋아 진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도 없으며 그렇게 되는 일도 없다. 일의 성취는 함께 하는 이들과 나누어야 했고 가급적 조직의 수장은 앞에 나서지 않는 게 좋아 보인다. 설레발을 적당히 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 달여 일이 많았다. 청소년행복마을을 위한 정책포럼, 달봉이자원 봉사학교, 달그락 청소년리더십 캠프, 참여예산아카데미, 영상사진아카데미, 역사문화 체험, 일주일여 진행된 실내외 프리마켓, 강원도 횡성에서 진행된 법인이사회, 후원TF, 청소년자치권확대 조례TF, 지자체 관련 회의들과 타 지역 관련 일에 최근 조직하고 있는 18세 선거권공동행동네트워크 일 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다.

어떤 이들은 연구소와 달그락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이 진행되고 좋은 평이 나오면 내 얼굴(?)이 메인인 줄 안다. 그렇지 않다. 기관을 운영하고 대표라고 하니 자꾸만 부각되는 모양인데 연구소와 달그락의 중심은 우리 청소년들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우리 위원회와 꿈청지기 자원 활동가 분들,

31)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 출처. 국립표준국어대사전

후원자분들과 지역 시민들의 힘이 크고 그들이 일의 중심과 주변의 모두다.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말할 것도 없다. 실무진, 즉 청소년활동가들은 청소년들 만나고, 지역 시민들 만난다. 소통하고 관계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나름의 가치들을 토론하며 함께 하고자 노력한다. 청소년과 실무진, 지역의 다양한 시민들의 담당하는 일의 내용과 역할이 다를 뿐이다. 일의 위아래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조직을 꾸리다 보니 실무진 안에서 약간의 위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 이러한 위계적 부분도 어떻게든 타파해 보려고 한다.

내 입장에서는 실무 활동가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청소년은 그 존재 자체로서의 역할, 청소년위원회, 자원 활동가, 후원자와 지역시민들의 역할들이 조금은 복잡하게 놓여 있다. 복잡한 가운데 체계화 하고 기관의 이상과 가치를 고려하여 그들의 일들이 잘 되도록 돕는 게 운동을 행하는 청소년활동가들의 역할이다.

오늘은 휴일이다. 월요일은 정기휴일인데, 출근하니 광복절이라는 것을 알았다. 두 분 선생님은 휴가를 떠났고, 두 분은 점심 쯤 되니 연구소에 얼굴 빼꼼히 내밀며 나타난다. 오후에는 청소년들 몇몇이 활동 한다면 찾아왔고, 모시의원님과 함께 청소년들은 청소년자치권 확대 조례를 위한 TF 회의도 진행 중이다. 위원이신 이 대표님과 메거진군산 국장님 등이 함께 오셨다. 그렇게 또 다른 휴일이 지나가고 있다.

혼자서 행하는 일이 아닌 운동(movement)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네 일은 결국 자기 자리에서 '연대'하며 맡은바 함께 하는 그 어떤 관계적 일들임에 분명하다. 누구 하나 튀고 누가 잘 나서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만큼은 확신한다. 어찌됐건 날이 참으로 따뜻하다. 조만간 또 시원해지겠지.

# Again,

다시 청소년운동으로, 그리고 다시  
'위대한 거부' 로

# Youth

심한기 대표

# Movement



## 다시 청소년운동으로, 그리고 다시 '위대한 거부' 로

심한기

### ■ 에세이와 군산?

포럼을 위한 원고를 에세이 방식으로 써 달라고 한다. 학술적 이론을 근거로 한 객관적이고 공공적인 표현을 과감하게 버리고 개인의 언어를 통한 솔직한 표현을 주문 받았다. 익숙한 습관과 방식을 버리라고 하니 나에게도 참 반가운 제안이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포럼의 장소가 서울도 아니고 대전도 아닌 군산이다. 아니 세상에나... 이것도 참 반가운 제안이다.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것 같은 '정보의 습득, 참여의 기회,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답답하게 막혀있는 일상에서의 작은 울림과도 같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다. 지역 불평등, 세대 불평등과 같은 현실 속에서 불평을 늘어놓기는 했지만 다시 평등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실천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번 포럼에 제안된 원고의 방식이나 서울이 아닌 군산에서의 만남을 의도한 것 자체가 '다시 청소년운동으로'라는 거대한 과제를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이 즐겁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 ■ 다시 질문해보자.

'다시 청소년운동'을 이야기하자고 한다. 그런데 '다시'라는 단어를 쓸 만큼 청소년 현장에서 지속적인 청소년운동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물론 그 때 그 때 사회적 이슈에 따른 행동이나 외침들은 분명 있었지만 진정성 있는 세상의 변화와 그 속에서 나아가는 청소년의 자주적인 성장과 참여를 위한 논의와 실천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객관적이고 솔직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번 포럼이 우리 스스로의 성찰과 지혜로 이에 대한 질문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청소년과 관련한 이론이나 현장 실천을 위한 연구와 포럼 등은 늘 있어왔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많은 연구와 논의와 정책들은 청소년의 삶과 행복이라는 본질과는 멀어져가고 있음이 감지되었다. 우리는 그 동안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잃어가며 당장의 해결과제와 전망을 위해서 달려왔다. 이러한 과정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와 판단으로 서서히 변환되며 개인과 집단이 가져야 할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소통에 대한 시도들을 가로 막

았다. 이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 기본적인 자  
제력조차 잃어버린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과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던져진 문제와 과제들은 몇몇 사람들의 불손한 힘과 우매함만으로 생겨난 것은 아  
니기에 스스로 가능한 개인과 집단의 질문이 필요한 시간이 온 것이다. 그래서 '다시  
청소년운동'이라는 논의를 위해서는 '다시 던져 보는 질문'으로 시작하려 한다.

■ 강대군 그리고 위대한 긍정

작고하신 강대군 선생이 떠오른다.

'아이들이 울고 있다. 위대한 거부를 하자. 청년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을 달고 사셨  
던 강대군 선생이 떠오르는 이유는 막연한 연민과 기억이 아닌 여전히 그분의 말씀이  
유효한 세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전히 아이들은 울고 있고, 여전히 익숙한 것에 대  
한 의문과 거부가 절실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마르쿠제의 '위대한 거부'를 읽어주시  
면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었다.

[ 외설이란 원래 기존체제 언어창고 속에 있는 윤리적 개념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기성사회  
자체의 도덕성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표현에 사용됨으로써 이 용어는 확대 적용되고 있다. 외  
설적인 것은 음모(陰毛)를 노출한 발가벗은 여자의 사진이 아니라, 침략전쟁에서 받은 훈장으  
로 정장(正裝)을 한 장군의 사진이다. 외설스러운 것은 히피의 의식(儀式)이 아니라 평화를 위  
해서 전쟁이 필요하다는 교회 성직자의 설교이다. 외설에 대한 반응은 수치심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금기(TABOO)를 범하는데서 오는 죄의식의 심리학적 표현이다. 그러나 현 사회는 문명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금기를 상당히 침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요한 사  
회의 외설적 노출은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되었다.

(허버트 마르쿠제, 위대한 거부 중)

“사람들은 길들여진 타율성과 자발적 복종에 익숙합니다. ....”

“한 번 몸에 밴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완성을 향한  
첫 걸음은 언제나 그러한 벗어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정할 수 있는 내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긍정을 위한 시작입니다.

새로운 명제도 아니고 새로운 주장도 아니다. 하지만 생활의 실천조차 쉽지 않은 '부정  
할 수 있는 나' 그리고 이를 통한 '위대한 긍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시작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는 일상의 현실부터 다시 들

춰볼 수 있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청소년 정책,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그리고 진로-직업, 모험-봉사, 가족-인성, 역사, 문화-예술-과학-환경  
등으로 잘게 쪼개어 날아다니며 청소년 활동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가지는 본질적 한  
계와 문제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나 한계나  
변화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다. 청소년수련관의 본질적 문제는 무엇일까? 운영지원  
이 부족한 것, 공간이 부족한 것, 홍보가 부족한 것, 지도자가 부족한 것 등 당장 체  
감되고 보여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다시 예를 들어보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재단 등에서 일어나는 매일 매일의 일상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을까? 각 종 계획안과 보고서, 각 종 정산서류와 영수증, 각  
종 결재서류와 공문이 일상을 채우고 있는 시간이 많을까? 아니면 아이들과 시를 써  
보고, 노래를 만들어보고, 세상을 읽어보고 연결해보고, 다른 생각과 다른 욕망에 대  
한 공감을 해보고, 지금 같은 시국에 대해서 진한 토론을 하며 한 명 한 명의 생각  
과 선택이 담긴 피켓을 만들어 광화문 거리를 나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을까?  
또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련활동 인증을 받고 아이들을 지도(指導)하는 시간이 많  
을까? 아니면 함께 질문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상상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많을까? 이 질문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이 지니고 있어야 할 본질 그  
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본질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선 '부정할 수 있는 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위  
대한 긍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그래서 다시 운동이 필요한거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의 오류와 함정과 태만을 다시  
발견해보고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청소년 운동이 필요하다. 청소년  
과 관련한 학문과 이론에서는 그동안 집중해왔던 '지도(指導)의 기술과 방법'을 넘  
어서 사유(思惟)와 상상, 연결(연기緣起論)과 통섭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실천철학  
과 통찰의 방식들을 찾아가야 한다. 그럴 수 있어야 현장의 사람들, 현장의 일상들이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의 성찰과 함께 개인의 성찰과 변화가 함께 갈 수 있어  
야 한다. 진정한 운동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 또는 아주 작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야 한다. 나로부터의 사유와 정신을 흔들어가며 나로부터의 실천적 근육을 만들  
어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나로부터의 스스로 학습과 성찰들이 매일 매일  
의 일상 속에서 시도되고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나의 정신과 근육이 만들  
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도 함께 흔들리고 함께 움직여 질 수 있다. 이  
렇게 표현하니 너무 거창하고 거대하고 무겁게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늘 진정한 진  
지함 속에는 진정한 즐거움이 따라다닐 수 있고 진정한 즐거움의 시작으로 진정한

진지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재미나는 평풍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25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 속에서 얻는 현재까지의 결론이기도 하다.

■ 청소년문화운동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으로 살면 운동이 된다.

청소년문화운동, 지역사회청소년운동,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운동 등 따위의 구분으로는 이 글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본질로서의 운동으로 접근하기 힘들다. 학교의 교과목이 구분되고 학문과 이론이 구분되고, 청소년 정책과 지원들이 오징어 다리를 찢어 먹듯이 구분되어서는 우리가 희망하는 운동으로 다가가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라는 것은 청소년이론과 활동의 부분이 아닌 모든 것을 연결하는 전체가 되어야 하고 청소년문화운동은 어떠한 장르적 접근이 아닌 청소년, 활동가(나는 청소년지도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싶다), 공간, 소통, 관계, 생각 등을 만들어가고, 재구성하고, 수평으로 전승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즉 평등한 문화, 자유로운 문화, 정의로운 문화, 즐거운 문화와 같은 명제들을 만들어가는 총체적인 삶의 과정이며 실천이 바로 문화이며 별도의 청소년문화운동이라는 고유명사를 호명하거나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문화적인 태도와 실천이라는 것은 익숙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의심과 거부가 있어야 가능해진다.

'보는 것을 믿는다 - 재현 /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심해본다 - 생각의 탄생'

인문학이나 예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있는 지식습득의 방식(이론가와 학자가 나열한 원리나 설명들)이 아닌 개별의 눈으로 그리고 현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갑자기 이걸 무슨 말인가? 라고 의문이 들 것 같아 재미있는 예를 들어본다. 사각형의 캠퍼스와 물감으로 시작된 그림 또는 예술의 세계를 마당과 광장으로 끌어낸 것이 현대미술이며 보이는 대로 이해되는 그림들을 매우 난해하거나 장난스러운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현대미술이다. 그래서 거대한 미술관에 전시된 현대미술 작품 예를 들어 '양변기를 떼어서 걸어 놓은 작품'과 같은 것을 고정적인 눈과 생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어진다. 즉 작가의 배경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이해와 만남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야 현대미술을 즐겁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도구는 눈으로가 아닌 나의 오감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은 보이는 것들,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전혀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것들에 대한 의심과 관심과 상상들이 '다시 청소년 운동으로'와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다.

문화는 수단, 기술, 방식이 아니다.

문화는 생각이고 상상이고 행동이고 소통이며 관계이고 변화이다. '다시 청소년운동으로'를 실천하려면 나의 일상이 문화적으로 변환될 수 있어야 한다.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문화적 행동 또는 실천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 않았던 생각과 시도를 해보자.

어디나 비슷하고 획일적인 다목적강당이나 동아리방의 플라스틱 명패를 떼어버리고 라면박스 종이로 발칙한 이름을 새겨놓고, 수련관 로비에 흙을 깔아 맨발로 산책을 해보자. 종일 씨름했던 행정서류와 영수증 뒷면에 온전하게 표현된 나의 일기를 쓰거나 잠시 옆에 있는 16살 친구와 함께 하늘을 보며 느껴지는 생각의 향기를 그려보자.

나는 행복한가? 라고 질문해보자.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아주 세심하게 오감으로 질문하고 찾아보자.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먹고사는 것만을 위한 '생존의 공간'인가? 아니면 나의 존재가 들어오고 아이들의 존재가 들어나는 '실존의 공간'인가?를 질문해보자.

만나지 않았던 것들 만나보자.

청소년이 아닌 세대, 청소년과 연관되지 않을 것 같은 지식과 이론, 해왔던 일과 상관없었던 영역과 사람, 무시했거나 다르다고 여겼던 것들을 만나보고 만져보자.

나를 다시 바라보자.

정책, 시스템, 환경과 조건, 조직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바라보자. 아이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질문해보자. 나와 나 사이의 소통이 가능한 조건을 먼저 만들어보자.

그렇게 다시 청소년 운동으로....

나와 옆 친구의 어깨를 두드려가며....

# Again,

청소년운동의 영역별 관점

인권현장과 청소년운동 고민

# Youth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Movement

청소년운동의 영역별 관점

## 인권현장과 청소년운동 고민

박진(다산인권센터)

### 0. 질문

삶이 초라하게 무너지는 곳에서 인간의 존엄은 사라진다. 해고된 노동자, 쫓겨난 철거민, 살해된 여성, 다치고 죽어가는 비정규직, 물대포에 맞아 떠난 농민, 유서 한 장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가난한 생명 모두의 거처는 좁기만 하다.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마천루의 자리는 커지는 때 인권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진다. 단지 부도덕한 어느 정부의 정치만이 문제 아니다. 이미 불공정함과 불균형은 자체로 블랙 게이트였다. 인성교육 토론문을 쓰기 위해 고등학생 딸에게 물었다. '인성교육은 뭐라고 생각해?' 우문은 현답으로 돌아왔다.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 시대 청소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인성교육이 뭐라고 생각해?  
"바른 사람이 되라는 거 아냐?"  
바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  
그럼 \*\*이는 바른 사람이네? 선생님하고 부모님 말 잘 듣잖아?  
"아니야. 엄마 나는 말 잘 듣는 아이가 아냐. 난 공부를 못하잖아. 말을 잘 듣는다는 건 공부 잘하는 거잖아..."

### 1. 장면들<sup>32)</sup>

#### #혁명보다 사랑

"남들은 혁명을 주장하고 계급을 얘기하는데, 고작 사랑 따위 타령을 운동씩이나 해야 하다니, 한심해서..." 기운 빠진 목소리가 기억난다. 그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였다. 한숨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에 입바른 위로도 해주지 못했다. 감추어야 하는 감정과 감당했던 슬픔,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했다. 정체성이 일상 속에 부대꼈다. 빗어낸 갈등

32) 한겨레21에 기고한 노 땡큐의 글들의 일부입니다.

이 발목을 오래 붙잡았다. 밝히지 못했기에 거짓말쟁이 같았다, 했다.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야만 하는 강박 같은 것이 있었어. 운동하면서도 나는 곁돌았지, 세상을 바꾸자고 얘기하면서도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 밝혔는데, 또 드는 생각은…언제까지 나는 정체성에, 사랑 따위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말이야.”

서울시청을 점거한 성소수자들을 보았다.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 서울시 인권헌장 선포를 거부한 서울시에 대한 무지개 농성단 항의행동이었다.

### #박설규씨의 가을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라는 선전 문구를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 임금에 피크조차 찍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허상뿐인 희생을 강요한다. 97년 노동법 개악이후 청년이 보장된 일자리는 몇이나 되었던가. 해고는 살인이라 외칠 수도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마다 해고 되고 이듬해 부활했다. 내 부모처럼 구사일생 되지 못한 노후는 폐휴지를 모으며 연명한다. 장례비 10만원을 남기고 유서를 쓴다. 그런 마당에 더 자유롭게 해고 하고 노동 시간을 엿가락처럼 늘리며 원청이 하청을 맘대로 관리해도 되도록 하겠다. 취업하자마자 빚부터 갚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구직은 가까운 현실이고, 해고는 먼일이라 속삭인다. 그들 운명도 불안정하며 언제든 폐기 처분될 것이라 말해 주지 않는다.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안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광고에 등장한 청년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책망의 말을 던진다. 노동개혁은 빚덩어리 청년들을 달콤하게 협박 한다. “니들 아버지가 죄가 많다!”

### #고통의 등급

국현씨는 스물 초반 뇌출혈로 말을 못하고 오른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뇌병변 장애인 되었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 이듬해 시설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27년을 살았다. 마음껏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으나 불가능했다. 국현씨는 자립생활을 꿈꾸었고 선택했다. 자립생활은 쉽지 않았다. 혼자 밥조차 먹을 수 없었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등급이 아니었다. 이의 신청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현씨 집에 불이 났다. 가까운 곳에 사람이 있었으나 소리 지를 수 없었다. 화마는 온 몸을 덮었고, 심각한 화상으로 고통당한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다.

### #그 많던 노동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인공지능에 패배한 인류는 공포에만 젖어 있지 않다. 영민한 자본은 희망을 연출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나누어주고, 기계화된 편리한 세상이 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 그러나 가능한 일일까. 기계 문명이 유토피아를 열어줄까. 이미 넘치는 편리와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는 세상이다. 경제학자 아마티아 센의 말

대로 ‘잘못된 분배가 빈곤을 낳는 것’이지, 자원의 부족이 빈곤을 낳는 것은 아니다. 사람없는 무인매표기 앞에서는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을수록 더디고 서럽다. 새로운 것이 생산될수록 불평등의 골은 깊어진다. 비용의 이름으로, 효용의 명분으로 버려지는 인생이 즐비하다. 승부 이후, 정부는 ‘AI(인공지능) 종합육성정책’을 발표하고 투자 금액도 늘릴 계획이라 한다. 아뵐사… 인공지능에 패배한 것보다 두렵다. 여전히 틀린 ‘수’를 쓰고 있는 시스템 때문이다. 알파고를 앞세운 혁신의 시작과 끝에 여전히 ‘체제’가 있다. 공포도 희망도 새롭지 않은 ‘사람’ 말이다.

### #사과받고 싶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1월 14일 물대포에 맞아 위중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제가 오늘 충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인간적 사과는 책임 지지 않는 것이고 법률적 사과는 책임지는 것인데 책임질 사과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강청장 인간성을 알지 못하니, 진짜 인간적으로 미안해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강청장 입을 벌여 나온, 국가의 대답은 미안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말이다. 백남기 농민 가족들은 책임있는 사람에게 “사과 받고 싶다” 말했다. 김무성은 ‘강경노조 때문에 건설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며 콜트약기와 콜택을 지목했다. 억울하게 쫓겨난 해고자들은 사과 받기 위해 40여일 넘도록 곡기를 끊었다.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딸 잃은 황상기씨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반올림 동료들과 함께 삼성본관 앞에서 50일 넘어 노숙 농성중이다. 참사 600일 행사 앞둔 세월호 유가족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온 몸 던져 사과하라 말하고 있다. “당신들 우리한테 왜이래, 우리 아빠한테,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왜이래! 나한테 왜이래!” 인간이기 때문이다.

### #여남의 연대

강남역과 섬마을에서 여성이 죽거나 다쳤다. 올레길, 등산길에서 여성들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있다. 공감의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였다. 그런데 ‘사건 정체가 여성혐오 범 죄다 아니다라는 논쟁으로 번지더니,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혐오를 담은 공권력 대책이 발표됐다. 신임 여교사는 도서·벽지 학교에 발령 내지 않겠다, 한다. 중국동포 살인사건이 터졌을 때는 불법 이주민을 색출하는 인종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강남역 발언은 특별한 놈들에게 전자발찌 채우고 DNA 채취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위협의 책임을 받거리를 걷는 여성들, 짧은 치마 입은 여성들에게 지우지 말라는 것이다. 여성 피해는 특정 남자의 기이하고 나쁜 것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안전하다 주장하는 집에서, 친족과 가족에게 성폭행당하는 여성이 다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나를 죽이지 말라’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들의 발언은 경험에서 시작된 연대이다. 부정하는 것은 여성들의 삶, 생활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 2. 세월호의 장면들<sup>33)</sup>

겪어보지 못한 충격 앞에, 대한민국은 교복입은 청소년만 지나도 눈물 흘리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현수막이 여기 저기 붙기 시작했다. 흩어지는 말들 중에 가장 많은 말들은 '미안하다'였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현수막도 많았다. 사람들은 왜 미안하다 말하기 시작했을까..., 무엇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말일까... 이후로도 오랫동안 '미안하다'는 여러 의미로 읽혔다.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감당할 수 없는 상실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버텨온, 체제의 실패를 성찰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한 민기지 않는 사실 앞에서, 제대로 고박 되지 못해 넘어간 거대한 화물들처럼... 평형수를 빼고, 과적을 일삼아도 모르쇠하며, 이 위험한 체제를 버려준 자신 스스로를 탓했는지 모른다.

### '가해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미안하다' 속에는 희생자 대다수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무관하지 않았다. 특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와 같은 류 언어에는 '보호주의'가 도사리고 있었다. '어른들이 잘 못했다.'는 직접적 말도 같이 쓰였다. 그러나 '어른'이 대입되면서 지켜주지 못한 잘못의 진정한 주체는 가려졌다.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의 주체는 '어른'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위험한 배를 바다위로 띄운 책임도 '어른'이 질 문제는 아니었다. 이후 이어진, 진실을 은폐하는 시도를 했던, 피해자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방해한 집요한 주체도 '어른'은 아니었다. 모든 책임의 정점에는 '어른'이 아닌, '권력'과 '국가'가 있었다. 피해자를 '어린' 청소년으로 두고, 가해자를 '어른'으로 둔 모호한 책임의 말들 속에서 '진실을 은폐할 길'을 찾았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들이 범인이었으리라. 아마도 참사 책임의 착시효과를 통해 탈출의 길을 모색하는 이들이 참사의 진짜 가해자들이었으리라. 어쨌든 '어른'의 잘못이라는 말들의 착시효과는 참사 초기 꽤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말들에 포함된, 성찰의 의미는 깊이 읽혔다.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한 국가와 체제에 자신들 스스로를 포함시킨, 직관적 언어였다고 말이다. 그러나 성찰의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국민 다수를 트라우마 상태에 빠트린 상실과 애도의 감정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피해자가 눈물만 흘리는 '희생자'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등장한 능동적 주인이 된 시간과 겹쳤다.

33) 녹색평론에 기고한 '아직 누구도 용서받을 만큼 책임지지 않았고, 잊을 수 있을 만큼 위로 받지 못했다'중에서 발췌했습니다.

## 3. 추락하는 것들의 날개

### #참을 수 없는 불공정성

누구는 '달그락 훅' 만 해도 B학점을 받았다. 금수저, 흙수저의 불공평함은 알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애쓰다보면 나오는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애초에 경쟁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시작도 하지 못하고 패배했다는 자각은 오히려 추락하는 것에 날개를 달았다.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 광장으로 나오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 세월호를 거치며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녔기 때문이다. 동료 세대의 죽음에 국가의 부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치 2008년 광우병 촛불 광장을 열어 재깰던 에너지와 비슷하다. 참을 수 없는 불공정한 세상은 역설적으로 청소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에너지를 주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 #동료시민들의 자세

민주주의 광장에서 조차 '대견한 아이들'이라는 칭찬을 들어야 한다. '너희들 보기 부끄럽다'는 타자화를 경험한다. 동료시민으로써 존중받지 못한 채, 미성숙하므로 '광장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논쟁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발언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가시화될 것인가가 남아있다. 여전히, 나이와 권위를 상대로 투쟁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 #전선은 '권위와 나이'에만 있지 않다

빈곤, 소수자, 이방인, 타자... 학교 밖의 시민들이 닦친 인권문제는 조직되어 드러나지 않았다. 동정의 대상이거나 외면의 대상일 뿐이다. 청소년 운동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대간 권위와 교육체제만이 적대적 전선일 수 없다. 또는 현장일 수 없다.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 4. 민주주의에 대한 어느 해의 고민<sup>34)</sup>

### #서러워도 너무 서럽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 그 아버지와 그의 이력을 아는 만큼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았다. 부정선거로 오류가 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유권자 절반만큼 딱 같았다. 백만 학우 전대협과 한총련 정치적 세례를 입은 중장년층이 퇴근길 맥주 집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거품을 물었다. 그러나 그보다 빠르게 절망을 몸으로 표현한 사

34) 미디어스에 보낸 글입니다. '언니의 1년, 상상력을 무덤으로 보낸 죄를 묻는다.'

람들이 있었다. 한진중공업의 최강서, 현대중공업의 이운남... 선거 끝난 지 열흘이 되지 않는 동안 5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 무서운 일이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현재를 불안해하는 50대 이후와 상대적으로 학력과 경제력이 낮은 이들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었다. 불안이 그를 당선 시켰다면, 한 달도 되지 않아 자신의 존재 기반인 불안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이다. 그야말로 온몸으로 절망을 표현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그것을 말해주었다. 지금도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법, 밀양 유한속 어르신까지 죽음의 향은 꺼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통치행위의 거부로 이어진 죽음이 본질적으로 통치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탄생과 이어졌다는 것을, 박근혜는 알아야 한다. 이 정부는 선거 조작이 발각되기 이전부터 이미 뿌리 없이 부유하고 있었다.

최근 박근혜 정치와 정책에 반대하는 대책위가 무수히 꾸려졌다. 내란음모, 전교조, 공무원, 밀양, 삼성최종법열사, 철도민영화 대책위들. 이미 강정, 민주주의시국회의, 용산, 쌍용차 등의 사안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대책위 춘추 전국시대다. 모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위다. 그런데 이런 대책만으로는 정말, 대책은 마련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민생이 따로 이야기되어서는 안된다. 자본 폭력과 국가 폭력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전교조의 아픔은 철도의 아픔이고, 밀양의 비명은 강정의 비명이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는 삼성 최종법의 유족과 같다. 그래서 이런 고통의 연결이 희망의 상상력으로 등장할 때가 되었다. 이런 등장은 '반박근혜 전선으로 모두 모여야 한다' 같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는 99%' '99%의 세상은 가능하다'는 상상력으로 출현해야한다.

#### #민주주의의 문제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1월과 3월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언했다. 이런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공포정치의 계기가 있을 테니 두고 보라는 엄포다. 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제대로 들을 줄 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해보자. 민주주의와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 놓는 자들의 몰락을 준비하자. 또다시 표찍는 기계로 전락해 이런 농만은 안 된다는 대책 없는 대책에 몰두하지 말고, 지금부터 대규모의 민중의회를 만들어 봐도 좋겠고, 모든 도시에 아크로폴리스를 세워도 좋겠다. 방법은 찾으면 나올 것이다. 꿈꾸고 모이고 상상하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지위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복원한다면... 적어도 나는, 이것만은 확신한다. "너희들은 민주주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 5. 나오며

그래서 인권의 문제를 민주주의를 통해 풀어낼 방법을 찾고 묻는다. 인권현장 속의 청소년과 청소년 운동에게.

지금은 더 많은 민주주의로 복수해야할 때. 기존의 관성과 지시, 권위와 편견의 때를 버리고, 보다 많은 가치와 민주주의, 인권을 논의할 때. 그들이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야 할 때. 부정의와 비겁, 부패와 불공정, 패거리 주의,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비이성과 불합리에 내 준 모든 것을 되돌릴 때.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남은 것도 도려내며 가야할 때.



# Again,

「 청소년 참여의 반석  
청소년운영위원회로의 전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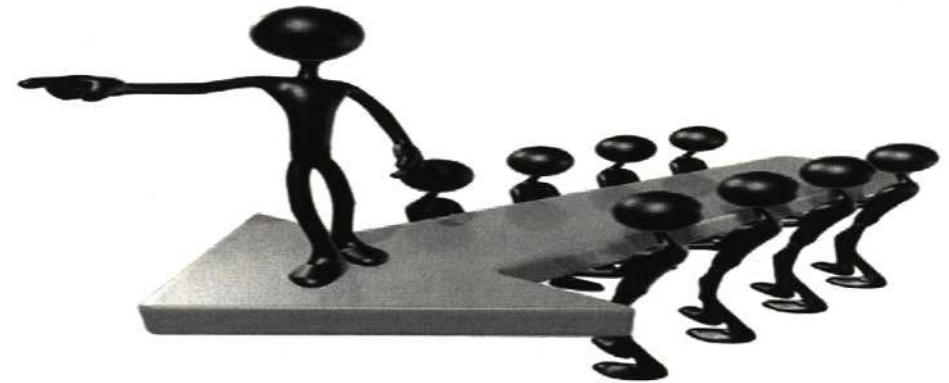
# Youth

한도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

# Movement

## 『 청소년 참여의 반석 청소년운영위원회로의 전진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도희 사무총장 (‘16. 11. 26)



우리나라는 뒤늦은 민주공화정 정부수립, 일제강점기, 6.25 사변 등 특수한 역사적·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나 권리 수준이 매우 미약한 상황이며, 특히 청소년들의 인권은 성인·여성·노동의 인권도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인권은 후수위에 놓여 있다. 삶의 주체자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로 관리·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더욱 다양한 인권 중 맨 뒷자리에 놓여 있다 보여진다.

성숙한 나라건설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어려서 부터 자신의 권리를 알고 찾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주어진 권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권리란 위에서 내려오고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가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하겠지만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 참여와 관련해서 '어떤 걸 증되지도 않은 해외 학자를 끌어와서는 「사다리」 등 이야기 하면서 높은 단계에 있다고 뿔을 치는 등' 청소년의 인권을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 왔고, 청소년 실질적인 삶속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서서히 인간의 기본권적 권리라는 기본에 충실한 청소년권리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지도자들의 노력을 통하여 부지불식간에 스스로의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청소년권리에 대한 정책적 역사는 다음과 같다. 변증의 논리 중 '양질전환'이 떠오른다.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이라 선언한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서 문서로 명기되어 시작되어진 '청소년권리'라는 낯설고 소수 진보적인 식자층에만 어울릴 것 같았던 한 줄의 씨앗이, 이에 현장에 뿌려져 20년이 가까이 된 지금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탈바꿈 되었고,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의 형이상학적인 머리로의 이해가 아닌 몸으로 말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 과정에 대하여 몇 개의 영역으로 간략한 평가를 더하여 두서 없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소귀의 성과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첫째, 토양 작업의 일환으로 '최윤진 교수, 이봉철 교수, 천정웅 교수, 김영지 박사, 조영승 교수 등'의 노력으로 나름 청소년권리에 대한 학적 및 논리적 탐구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쉬운 점으로는 10년 전 까지 나름 몇몇 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움직이던 모습은 최근 소강상태에 들어섬에 따라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헌법과 국제법, 관련 역사에 대한 고찰만으로도 청소년권리 및 참여를 근거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음에도 최근 검증되지 않는 해외의 학자(이론)들을 무분별하게 연결해 대는 모습은 우리의 청소년권리 증진의 방향을 혼란스럽게 하고 과거(원점:제2차 청소년기본계획 이전의 논의)로 돌아가게 하기도 한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항은

청소년권리를 잊어버리고, 아동권리(아동권리규약)를 중심으로 청소년권리를 이해하고 현장을 해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게 최근 현실이다.

둘째, 제도적 장치로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검정과정에 포함되어, 청소년 권리가 실질적인 청소년관련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많은 청소년관련 학과에서는 청소년권리(인권)을 개별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관련 연구물이나 책들의 수준은 아직 많은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많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준을 볼 때, 아동인권과 청소년인권을 구분하지 못한 채 지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나아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년참여 및 권리관련 연구물이 나오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태조사 수준을 못 탈피하는 재탕 삼탕 수준에 초보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 진다.

셋째, 나름 큰 제도적 성과로는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조문화 이고, 2004년 청소년기본법상(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청소년기본법으로 관련 조문 이동) '청소년참여'에 대한 법조문화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도적인 청소년참여 사업이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가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일부 운영예산도 확보하여 지원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참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골격을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아쉬운 점으로는 법제도는 잘 되어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의 담당공무원(담당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정책 환경(조직, 인력, 예산 등)에 비하여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지 못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소년특별회의의 경우 2003년 처음 법조문화 할 당시의 내용을 현 정부정책 주도로 바꾸다 보니 그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대다수 그 근본 가치를 충족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넷째, 나름 큰 성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활동 현장의 성숙을 들 수 있다. 바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을 통한 청소년들과 청소년

지도자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목적이 지역사회 청소년의 행복증진이라는 것을 재인식 하게 하였고,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관장 및 지역 결정자들의 수혜물이 아닌 기본적 청소년 권리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이를 올바르게 지키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주인의식을 찾아 가고 있다.

또 다양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 참여 경험 축적을 통한 성공적인 다음 단계 이행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400여개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국 시군구 단위 및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참여 관련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 참여기구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 시대의 청소년권리와 관련된 중점 과업은 청소년을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인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율적 권리향유의 주체이자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할 주체,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숨은 역량을 발현해야할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커다란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은 아직은 시작단계로서 앞으로 청소년스스로가 청소년권리 인지하고 생애적인 권리임을 머리와 몸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제도적으로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 사업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청소년인권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청소년운영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 매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자한다. 우선적으로 청소년인권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참여에 대한 현실태 점검하여 보고, 마지막으로 향후 지역사회차원(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참여 및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여 본다.

## 1. 청소년 권리의 역사적 흐름과 발전

청소년 권리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한가지는 세계 인권선언 같은 식의 선언과 규약적 논의를 하나를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청소년들에 대한 논의이다.

### 1) 국제 선언과 규약에 비춰본 청소년 권리의 진행

1차 세계 대전을 통해 드러난 아동들의 피해는, 1924년의 제네바 선언을 통하여 국제 사회가 '아동 권리'를 하나의 주제로 인식했음을 최초로 보여주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통해 인류가 경험한 참상 속에서 아동이나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입은 피해가 컸던 배경을 가지고 '1948년 아동권리 선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제네바 선언'과 '1948년 아동권리선언'은 선언으로서 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구속력을 가지기 못했다. 또한 이들 선언의 밑바닥에 깔린 핵심적인 관점은 '제네바 선언'에서 보여지듯이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20세기 전반부의 지배적인 아동관을 반영하고 있다. 즉,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기 보다는 여러 면에서 약한 존재이니까 보호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바탕은 10대 원칙인 '1959년 아동권리선언'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이 선언에서, 아동과 관련된 '시민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 볼 수 있는 '이름과 국적에 대한 권리'가 추가됨으로써 해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 것이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를 통해 북부 선진국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둘러싸고 발전적이고 빠른 변화를 일어나게 되었다. '보호'를 넘어서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권리'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9년 '국제 아동의 해'의 선포로 인해 아동 문제에 관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유포되고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아동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선언을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게 하였다. 이후,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게 되었다. 전문과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 협약은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대단히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생명권·국적권·신분보존권·의사표시권,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 시민적 권리는 물론, 가족동거권, 양육을 받을 권리, 건강 의료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 교육권, 장애아동의 보호, 문화 활동권 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담고 있으며, 마약, 인신매매,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도 규정하고 있다. 통상 기존의 각국 법률이 성인의 시작에서 아동을 단순히 수혜자로만 취급하고 있는데 비하여 본 협약은 아동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권의 적극적 향유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협약은 국제법으로서, 1995년 12월 31일에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190개국에 이르는 전 세계의 법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권리의 측면으로 청소년권리를 접근하는데 한계에 부딪치자, 유엔에서는 청소년권리를 구분하여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유엔은 청소년을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으로 정의하는데 청소년은 세계 인구의 18%인 12억에 해당하며,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87%의 청소년은 자원, 건강관리, 교육, 훈련, 고용과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제한적 접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한다. 이를 위해 유엔 회원국들은 청소년이 개발과 긍정적 사회변화, 기술 혁신 등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임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이상, 에너지, 그리고 비전은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수적이며, 청소년은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자임을 확정하였다. 더하여 청소년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며 창조적으로 사회의 많은 도전적 이슈들을 해결하며 발전에 공헌해 왔으며, 청소년의 노력은 또래교육과 환경보호를 통해 빈곤 및 기아와 싸우고 에이즈 질병을 막는데 기여해 왔다. 청소년은 또한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 이해, 그리고 존중을 고무시키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청소년은 종종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고,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사회 관계망 활용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며 통합적 사회발전을 위해 틈새를 연결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사회(community)와 국가적(national), 지역적(regional), 세계적(global) 발전을 위한 그들의 공헌은 인정되고 격려되어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를 명심하고, 이러한 도전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청소년의 잠재력이 어떻게 현재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인식하면서 '세계 청소년의 해(1985, 2010)'를 선포하였다.

1985년 유엔은 제1회 '세계 청소년의 해(참여, 개발, 평화)'를 기념하였고, 총회는 1995년 이의 10주년 기념으로 청소년의 상황 개선을 위한 국가적 실천과 국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 틀과 가이드라인인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 WPAY)<sup>35)</sup>을 채택하였다. 오늘날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은 청소년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분야에서 국가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청소년 참여가 가능하도록 양적·질적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평가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2009년 12월, 유엔총회는 2010년 8월 12일부터 2011년 8월 11일까지를 '대화과 상호이해(dialogue and mutual understanding)'를 주제로 한 '세계 청소년의 해'로 선포하는 결의안 64/134를 채택하여, 제2회 '세계 청소년의 해'<sup>36)</sup>를 개최하였다.

※ 세계 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 IYD)

유엔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은 매년 8월 12일이다. 1999년 유엔총회는 결의안 54/120을 통해 제1회 세계청소년장관회의(World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가 지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을 승인하였다.

1998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주제는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 청소년은 상상력과 이상과 무한한 에너지와 비전을 지닌 존재로서 사회의 사회·문화·경제·기술적 발전을 지속하는데 핵심적 존재로 규정되었다. 세계청

35)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의 15개 우선영역은 교육, 고용, 기아와 빈곤, 건강, 환경, 약물남용, 청소년비행, 여가, 소녀와 젊은여성, 청소년참여, 세계화, 정보통신기술, HIV/AIDS, 갈등예방, 세대간 관계 등이다. 청소년관련 유엔 프로그램은 정부간 정책형성 지원, 분석적 연구 수행, 그리고 청소년 개발에서 유엔활동의 효과성 증대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6) 제2회 '세계 청소년의 해 행사' : 제5회 세계 청소년의회(이스탄불, 7.31-8.13), 세계 청소년회의(멕시코, 8.24-27), 제1회 청소년올림픽게임(싱가폴, 8.14-26) 개최됨

소년장관회의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세계 청소년의 날'을 선포하여 청소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세계 청소년의 날'에는 세계 각지에서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는데 유엔은 기념행사 진행을 위한 전략으로 팀 구성하기, 행사 조직하기, 기념하기, 행동하기 등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세계 청소년의 날' 기념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제1회 세계 청소년의 날 기념(2000), 건강과 고용(2001), 지속가능한 발전(2002), 청소년 노동(2003), 세대(2004),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2005), 빈곤(2006), 청소년참여(2007), 기후변화(2008), 지속가능성(2009), 대화와 상호이해(2010).

이러한 국제 선언과 규약을 통하여 국제아동의 연령규정의 불명확함으로 아동의 권리와 혼용되어 사용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진행과정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인권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인권의 관심의 주변문제에서 핵심문제로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국제아동의 연령은 18세 이하의 모든 대상을 말하며, 국제청소년 연령은 15세에서 24세 까지이며,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은 9~24세임 )

## 2)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청소년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생애 주기의 한 독자적인 범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금씩 담론화 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화두로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생애 주기를 성인기, 청소년기, 아동기로 나누어 범주화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이다. 성인의 축소판으로 인지되었던 아이들은 '아동'이라는 독자적인 범주로 묶어 내고 미성년인 '아동'의 세상과 성인인 '성인'의 세상을 분리시키게 된 것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현대 국가의 출현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결과물로서, 산업인력으로 빠져나간 부모들을 대신하여 자녀를 맡아줄 수 있는 장이 요구되었고, 이와 함께 산업화에서 전문인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중교육의 장인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길어졌고 아동기 역시 길어지게 되었다. 사회가 급격하게 분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동과 어른의 생활권은 점점 더 분리되어

갔고, 이에 따라 '미성년'으로 범주화된 10대 아이들은 자기들 또래의 세상을 만들어 갔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모두 일방적으로 미성년자로 간주하면서 관리되었는데, 그들의 보호와 통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아동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유 없는 반항으로 잘 알려진 10대의 반란에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10대 들은 부모와 학교 외부에서 많은 정보와 자극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 학교가 반드시 옳거나 정당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된다. 10대들은 '기성세대'의 규제를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자기들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갔다. 신세대는 보수적인 기성세대 문화에 등을 돌리면서 보다 진보적인 세계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자 했다. 청소년들이 이 시기를 통해 아동과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또 기성 세대와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독자적인 문화 공간을 마련하게 되고, 성인/아동, 성년/미성년의 경직된 이분법을 깨고 준 시민으로서 입지를 굳히려고 하였다. 이러한 서구 청소년들의 움직임은 기성세대와 스스로를 구분하면서 근대성의 새로운 가치를 심어 가는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족 밖에서 상당한 발언권, 참정권, 시민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시도로서 미국, 프랑스, 서독, 일본, 영국 등 소위 선진국가들은 1960년대에 극심한 학원소요를 맞이하게 되었다. 1964년 미국 UC 버클리대 학생들이 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반대하는 격렬한 반전시위를 벌인 것이 도화선이 되어 반전 학생데모가 미국 전역으로 번져갔을 뿐 아니라 이 같은 학원소요는 유럽 대륙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인권과 자유, 평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도 당시 주방위군을 동원, 학생데모진압에 초 강경책을 사용하여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68년 5월 운동'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프랑스의 학생운동은 노동자의 총파업, 좌익사상 주의자들의 득세 등으로 프랑스 전체가 극도로 혼란에 빠졌으며 한때는 프랑스 국가 전체가 울 스톱되는 마비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그리고 이웃 일본은 전후 25년 동안 계속된 좌경화 학생들이 중심이 된 전학련 주축의 학생소요로 사회의 기틀이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시위가 극심한 대학에 대하여는 폐교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5년 시한의 '대학의 운영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제정하여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1970년을 고비로 학원이 진정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학생운동의 열풍은 1970년 초부터 잠잠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선진국의 청소년들은 시민적 자유권과 참정권에 있어서 더 이상 화두로 대두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1960년대 서구 청소년들 사이에 불어 닳았던 청소년 사회권 확보와 참정권 획득의 사상은 1980년대에 들어서 퇴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체제내의 점진적 개혁'을 표방하는 '신보수주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성인에 대한 자유권적인 운동은 쇠퇴하게 되었고, 대신 갈등적 요소를 문화적으로 풀어가려는 시도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1970년대 히피 운동과 반문화 운동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일으킨 하위 문화운동은 사실상 '문화 혁명'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근대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자유로운 유예기를 허용하면서 그들을 통제해 왔는데, 자본주의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그들의 '허용된 일탈'이 도를 넘어서 저항 문화화하게 되었고, 기존의 문화적 해체와 다원화된 새로운 문화적 공간과 범주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 결국 청소년들은 집단적 문화와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고, 개인적이고 다원적인 문화를 추구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포스트 모던의 문화의 기틀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은 지금까지 자신의 권리를 성인들에게 학생운동과 문화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해결책으로서 반영되지 못하였다. 청소년 운동의 실패는 결국 청소년 비행, 일탈 등의 문제와 청소년 문화의 형태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이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자, 기존의 정부와 성인들은 문제의 치유책으로서 청소년의 사회 복지권적 측면에서 대중 학교제도를 축으로 하는 여러 가지 혜택과 수혜 등 대비책을 준비하였으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청소년에게 있어 창조적이고, 자발적 능력을 가지게 하는 어느 것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우선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에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 원인 발굴에 있어서 사회 구조적인 측면과 역사의 변화안에서의 원인을 찾아낸 후 처방책을 제시하여야 했으나, 보이는 현상만의 문제속에서 문제해결의 처방책을 간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에서 청소년 인권의 흐름을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국제적 선언과 협약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의 확장이었고, 다음에는 청소년 스

스로의 문제의식을 통한 성인사회에 대한 반항과 이탈로서의 자기 표현과 권리획득 운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국제적 선언 및 법적인 근거마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청소년참여에 대하여 많은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나, 문제는 청소년스스로의 참여에 대한 인식과 노력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초기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채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 비극 속에서의 낙관 -

매일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나는 스스로를 '미래가 없는' 세대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을 생각해 본다. 이것은 한 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그런 젊은이들이 위안을 얻은 것이 담배가 아니라 마약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실 마약 문제는 이보다 더 보편적인 집단현상, 즉 현대 산업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인 실존적 욕구의 좌절에서 나오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정신병의 발병요인에서 점점 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단 로고테라피 치료 전문가들만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 빈에서 실시된 통계조사를 보면 전체 인구의 29퍼센트가 자신들의 삶에서 의미가 실종되었다고 호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나는 소위 '실업으로 인한 신경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젊은 환자 중에서 특별한 종류의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출판한 적이 있다. 그 책에서 나는 이런 신경질환이 두 개의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을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과 동일시하고,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을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한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원인이 되는 실업 신경질환화 함께 정신의 학이나 생화학적 조건이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유형의 우울증이 있다. 따라서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는 각각 별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삶이 무의미하는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어떤 신경질환의 표시나 징후라는 점을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병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병적인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잠재적으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간단하게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집단적 신경 증후군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증후군이 보여 주는 세 가지 단면, 즉 우울증, 공격성, 약물중독이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실존적 공허감, 즉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증거들은 무수하게 많이 있다.

빅터 플랭클린 “죽음의 수용소에서” 중에서 (청아출판사) 발췌

현 우리의 주요과제는 청소년의 참여 역량강화(교육과 참여의 실천)를 통해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를 서서히 확장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중에서 현재 가장 현실적이고 눈 앞게 실적과 발전을 보이고 있는 제도가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2 지역사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진격

### 가. 청소년권리 관련법제 분석

우리나라에는 청소년권리에 관한 독립된 법률은 없으나 국가 최고상위법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서 청소년의 인권에 관해서도 특별조항을 두고 있고, 청소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1) 헌법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제10조부터 제39조에 걸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부 내용인 선거권, 근로권 등 제외하고는 청소년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된다.

#### 2) 청소년관련법 등

청소년관련법(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개별 법률마다 조문화하여 청소년권리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기본권적인 권리에 대한 사항은 그 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기본이념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률들 가운데 청소년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법률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책임, 구체적인 청소년 참여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이념을 통해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관련법을 제정하고 운영할 시 기본적으로 내재하여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②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보장 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사제5조2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조문을 통해서 청소년의 사회구성원 및 국민으로서의 구체적 참여 방안을 보여 주고 있다. 참고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조항은 2012년초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면 개정(참여 및 인권



조항을 기본권으로 파악하고 청소년기본권으로 조정, 실질적 복지관련 사업중심의 법조문으로 재구성)과 연동하여 청소년기본법으로 조문전체가 보완 및 이관되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기본권적인 이념과 다양한 책임을 밑바탕에 두고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수련활동·문화활동·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구체적인 청소년참여관련 조항으로는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이다.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나. 지역사회내 청소년운영회의의 진격

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보았을 때,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은 복지적 측면에서 주어지는 것 이라기 보다는 개개 청소년이 저마다 소중한 인격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삶의 기반인 가정, 학교, 사회를 행한 외침(자기 주장속)을 통하여 발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청소년 제자리 찾기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시작단계인 지역사회내에서의 청소년참여근거 확보와 노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도록 한다.

##### 1.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참여의 의의

청소년의 성장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정, 학교 및 사회의 장에서 행하여 지지만 가정이나 학교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제휴,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사회생활이 전개되는 무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적 작용을 하고, 직접 교육이 진행되는 장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 문화적, 인간적 자원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연대감이 희박해지고, 기성인들이 지역사회에의 협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력은 감퇴되어 왔다. 또한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한 영상매체와 인쇄매체 등이 증가함으로써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의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적 특성을 상실하고 오늘날에 이르러는 유해환경이 만연한 장이 되고 있으며, 단순한 주거 및 생활공간으로만 인식되어 옴으로써 지역사회 조직과 사설의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육성이라는 적극적인 기능이 결여되어 왔으며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활동에 있어서도 해당지역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에 기초한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청소년발달의 환경으로서 적절한 발달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청소년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변화 필요성은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청소년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자원과 서비스 운용의 중심점이 중앙으로부터 해당 지역사회로 환원되어 그 지역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되는 형태로 재편성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와 시설들이 그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문제를 단일한 사건이나 단일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맥락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단일한 대책이나 접근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청소년발달에서의 맥락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부모역할, 가난, 유해한 대중매체의 영향, 부적절한 건강관리, 경제문제, 교육체계의 실패, 인종차별주의, 청소년기관 사이의 영토권갈등, 부적절한 정부정책 등이 청소년이 살고 있는 발달체계를 구성하는데 이 체계가 청소년문제를 생성하는데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는

청소년문제의 원인이며, 동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문제행동 또는 발달문제의 해결책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문화적 맥락의 수준에서 찾아진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중심 청소년활동 및 수행에 중요한 원리는 1) 청소년문제는 문제들간에 상호연관성이 있어서 지역사회내의 패키지 서비스가 필요하고, 2) 개인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고, 3) 예방적 개입이 치료적 개입보다 더 경제적이며, 4) 일회성 개입은 지속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연속적 프로그램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내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접근방안 (청소년수련시설의 거점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로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제 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청소년기본법상에 '의사결정참여'라는 구체적 조항으로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청소년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도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중심의 정책을 방향으로 선정하고,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참여는 정책과정의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체적 삶을 실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의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한 측면도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의 청소년문제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전개에서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공동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청소년이 청소년문제의 최대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지역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책참여 및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사회 청소년의 공식적인 참여수단이 되는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정책결정과정 참여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진격을 위한 청소년위원회의 역할

- 우리지역 및 우리시설속에서의 청소년행복에 대한 정체성 고민 및 정립

- 청소년수련시설에 본 기능유지 모니터링 (주인으로서의 감독)
- 시설주인으로써의 시설운영활성화 (이용률 및 활용을 극대화)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시 청소년의 의견반영
- 시설운영위원회의 청소년참여지분 확보(40%이상: 성인위원회 동등한 참여)
- 시설설비나 실내장식 등을 개선할 때에 청소년 의견수렴반영
- 청소년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조직에 시설을 제공 및 지원시 의견반영
-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채용시 의견반영
- 예산수립 및 결산회의에 참여 및 의견반영
- 지역사회 현안사안에 대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참여 및 의견반영
-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백서 발간

# 참고자료 2 (청소년관련법을 통한 참여 근거)

1) 청소년기본법

<p><b>제2조 (기본이념)</b> 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잘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p> <p>1. <u>청소년의 참여 보장</u> 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p> <p>3. <u>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u>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p> <p><b>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b> ①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연령·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p>
---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가정의 책임)** ①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제7조(사회의 책임)** 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경제·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②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특별회의 개최) 관련조항 -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 : 1.특별회의의 지역단위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관련기관·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 3. 청소년관련 단체·시설·학계의 관계자, 4. 청소년위원회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는 청소년, 5.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대상을 정함에 있어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지역단위의 회의를 거쳐 전국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 할 수 있다.

제14조(의제 통보) 청소년위원회는 특별회의의 의제를 선정하여 선정된 의제를 특별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의제선정·연구 등을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협조의뢰가능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 2)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법 중심)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①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조항 -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1. 10인 이상 20인 이내구성, 2. 임기1년 연임가능, 3.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Again,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Youth

문 유 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Movement

##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1.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이하 '청네')는 2012년, 청년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또한 세대 내 연대와 다른 세대와의 세대 간 연대를 통해 한국사회에 잠재된 많은 불안요소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청네는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의 정치·경제·분배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걸맞는 사회적 대안을 마련해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청네는 사회 곳곳에 산재해있는 문제를 조사하고 글로 써보는 활동을 하는 기자단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금까지 지속해오고 있다. 청네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구성원들의 특징은 다른 사회운동이나 학생회 등 기존의 학생조직의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운동 조직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 중에서도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나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청년들이 있었고,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 하나가 청네의 활동이 될 수 있었다. 어떤 청년이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참여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플랫폼이 되어주는 것이 청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기도 하다.

### 2. 복지국가가 뭐길래?

복지국가를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를

정의하자면,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 등의 사회 보장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복지국가에서는 성별, 경제적 능력, 인종 등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아동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며, 원한다면 대학까지 경제적인 부담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 주거권 역시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점점 심화되는 청년실업과 더불어 양극화, 비정규직, 민영화 등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존의 인식 속에서 복지정책이라 함은 사실 선별적으로 가난한 이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로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앞서 말한 '약자에게 선별적으로'라는 의미로 복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환경에 맞추어 사회가 잘 작동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치들을 정책으로써 마련하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주된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에서는 복지정책을 사회정책의 영역에 포섭하고 있으며, 비단 사회적 약자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책 대상이 된다.

복지국가에서의 공공부조,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 안전망을 견고히 하는 것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발전과 함께 줄어드는 일자리,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실업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업자가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유, 평등, 연대 그리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이것이 청년

바라는 사회가 가졌으면 하는 가치들이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고, 노동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회가 도래한다고 하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면, '복지국가? 언제적 복지국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복지국가의 제도적 측면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복지국가는 단지 제도에 머물러있는 국가 모델이 아니다. 복지국가가 지향했던 가치들이 바로 자유, 평등, 연대, 사회 정의이기 때문이다. 이 가치들은 사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한다고 해도 중요성이 달라지지 않는, 우선해야 할 가치들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3.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청년의 전략

앞서 살펴보았듯이 복지국가 개념에 대한 사회의 합의가 아직도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복지국가 담론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접근 방법을 고민해나가야 하며, 기성세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청년은 한국 사회를 복지국가로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고민하고 있다.

#### (1) 복지국가와 개념에 대한 대중화

지난 대선 후보들이 복지 공약을 앞다투어 내세우면서 복지국가 담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다. 따라서 청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복지국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2) 담론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담론의 재생산

대중화를 넘어서 기성세대로부터 받은 담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주체적으로 담론을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문가 집단은 아니지만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자체로 의의가 있다.

또한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기성세대가 만들어주는 정책에 대한 수혜자 입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청년운동과 차별화된 지점이 될 것이다.

**(3) 어떤 복지국가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마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사회와 동떨어져 이상만을 제시하는 단체로 머물지 않기 위해 '어떤 복지국가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성공적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한 국가들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는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4) 세대 내 연대와 세대 간 연대 구축**

세대 내 연대 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와 함께 각종 연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청년들과 소통함으로써 협력하여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세대 간 연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성세대 단체와 함께 활동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으며, 기성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세대 간 가교의 역할을 할 것이다.

**(5) 세계화와 지식정보사회 그리고 탈산업 시대에 복지국가 운동 전략 수립**

변화하는 사회 속 지식정보사회, 세계화 시대, 탈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과거 복지국가들이 맞닥뜨린 현실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현실에 적합한 복지국가를 설립하기 위해 선진 복지국가들의 대응에 대한 관찰과 더불어 한국에서의 시사점들을 모색하며 각 복지정책에 대한 의제에 접근할 것이다.

**(6) 청년세대를 넘어 기성세대 운동으로서의 복지국가 운동을 위한 준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대학원생, 시민사회 활동가, 정책보좌관,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 '복지국가'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회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60여명의 각 분야 자문위원과의 네트워킹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나감으로써 복지국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4.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활동**

청네가 하는 일은 교육활동, 정책제안활동, 연구활동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교육활동**은 대중을 대상으로 청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강연,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강연, 책읽기 모임, 문화모임 등을 꾸준히 기획하여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활동으로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청년의 시각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강연 형식의 「청년복지다방」, 방학 때마다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 또는 대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4~5강의 단기간 집중 강좌로 구성된 「청년아카데미」가 있다.

**연구활동**은 청년이 겪는 문제, 청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또는 청년의 사회인식, 정책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함으로써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아무런 콘텐츠 없이 대안은 나올 수 없고, 어떠한 문제제기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활동을 통해 체감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다른 나라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이슈파이팅을 하고, 더 나아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연구 결과물들을 언론에 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어 더 보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활동 또한 병행하여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활동 정리>**

프로젝트명	설명	시기	비고
대학생 4대불안 실태조사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대학생 4대 불안분야 실태 조사	2013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공동 진행

복지국가에서 온 청년의 이야기	주요 복지국가들의 청년 정책의 유형 및 종류에 관한 해외자료 조사	2013-2014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발주
한국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 조사	대학생이 인식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조사	2014	자체 연구조사
서울시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사회 인식 조사 및 생활 실태조사	2014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춘 의원실 발주
자벌리 청년 노동자 실태조사	자벌리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2014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발주
워킹푸어 청년 실태조사	워킹푸어 청년들에 관한 질적 조사	2015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 발주
시흥시 청년 빈곤실태조사	시흥시 청년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빈곤실태, 사회 인식 조사	2016	시흥시 발주
청년 다차원적 불평등 연구	청년세대의 세대 내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대한 연구(진행중)	2016	서울시 청년허브 발주

위와 같은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함으로써, 정책 제안과 이슈파이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워킹푸어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특히 청년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단체로서 의미 있는 연구였다.

‘88만원 세대’, ‘3포 세대’ 혹은 ‘달관 세대’ 등 지금까지의 청년담론은 주로 청년 세대의 공통성을 강조하고,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청년 세대만의 특징을 찾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청년 세대 내부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년세는 복지국가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대 간 연대 뿐만 아니라 세대 내 연대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다. 따라서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청년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양상(특히 빈곤 문제)이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했고, 그 작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다.

워킹푸어 청년들을 인터뷰한 결과 대다수가 기본적인 삶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당장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들다 보니 제대로 된 꿈도 꾸지 못한 채 좌절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전세이지만 집다운 집, 적절한 임금, 출산과 육아가 보장되는 삶. 이들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 보인 강한 불신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되지 못해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 “뭔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게 한국에는 없다.”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제안활동은 앞서 교육하고 연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국회나 지자체에 제안하는 활동을 말한다. 직접 정책을 만들지 않더라도,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법안의 제·개정 과정에 목소리를 더함으로써 청년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현실에서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정치권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15년 연금 사회적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한 활동이 될 수 있다.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5월 29일 최종 합의문이 도출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대표, 사업장 가입자 대표, 여·야 추천 전문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구가 출범하게 되었다. 사회적 기구에서는 ‘소득 대체율 상향 조정’,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논의를 하고, 공적연금 개혁과정에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최초로 연금 논의에 청년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청년이 정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공적연금이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견지하고,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청년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청년위원을 사회적 기구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대학생들에게 정치가 멀리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 5. 현재까지의 청년 운동에 대한 진단<sup>37)</sup>

사실, 청년의 활동은 시대적 흐름과 맞아떨어졌기에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 문제가 하나의 담론으로 자리잡기까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청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을 때,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다. 청년들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했고, 청년이 정책 대상이 되는 사회 구성원들 중 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반론에 부딪쳐야만 했다.

이 때, 청년 운동의 당사자성이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청년들은 자신의 문제를 언급할 때, 불쌍하니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권리가 배제되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의 청년 운동은 콘텐츠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았다. 당위적인 접근이 아니라, 데이터와 사례를 가지고 구성된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정책 수혜자 뿐 아니라 정책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성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요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력을 동원해 집회에 참가하는 것 외에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정보를 접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캠페인, 문화제 등 집회에 익숙하지 않은 현 세대 청년들이 가볍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이 좀 더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청년 문제가 사회 문제라는 데에 점점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청년들이 정책 결정과정, 정치의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만들어진다

37) 이 부분은 YMCA에 기고한 글("당사자 운동을 넘어 대안 세력으로")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거나, 청년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활동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정당들도 너나할 것 없이 청년 비례대표를 만들어서 청년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청년 운동은 청년들의 노력과 시대 담론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고, 청년들에게 소소하게나마 자신의 목소리를 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성공의 경험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야말로 시대적 흐름, 청년들의 노력과 아이디어의 합이 딱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 운동이 이처럼 잘 자리매김했다고 해서 지금 청년들이 겪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청년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정치권과 다른 세대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쉽게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운동이 장기지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할 것이다.

## 6. 청년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청년 운동이라고 하는 명명은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청년 당사자들에 '의한' 운동으로 읽힐 수도 있고, 청년들을 '위한' 운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에 초점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 단체들과 운동이 그렇듯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 운동의 측면

운동의 측면에서는 더 이상 청년들은 온정주의적 사고에 의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선배가 하기 때문에, 내 친구가 가기 때문에 따라하는 운동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청년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근거와 당위성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들에게는 기존 운동의 경험이 없으며, 각각은 파편화된 개인으로 존재한다. 집회에 참여할 때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서 참여하는 것이 지금의 청년들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특성을 기억하고, 운동의 내용과 방식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청년들을 단지 약자로 상정할 경우, 스스로 약자이길 거부하는 청년들이나, 유사한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까지 확장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문제도 구조적인 요인으로만 발생할 수 없고,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만 발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현재 사회에서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 사회 구성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사회적 주체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많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 (2) 정책 접근의 측면

그럼에도 청년 운동이 당사자 운동으로서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일어나는 포퓰리즘 논란과 세대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바로 그 예이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청년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들도 정치적 부담을 가져야만 하고, 청년 문제의 논의가 활성화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청년을 이야기하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청년'이라는 집단을 대상화하고 객체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시혜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낸 것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년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강화한 결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다. 그러나 청년들을 국가를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접근은 정책 시행의 목적과는 상반되며, 청년들이 그저 하나의 부속품쯤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번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청년의 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문제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년들을 이야기 할 때에는, '청년집단'이라는 아주 특수하게 보이는 집단으로 청년들을 상정하고, 이들이 투자의 대상이나 복지의 대상이나를 논쟁하는가 하면, 청년들 안의 특성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이들을 위한 정책 설계는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곤 한다.

청년 집단에는 모든 구성원이 속해 있는 것인데, 다양하고 복잡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사회 전체의 정책을 아우르고 있으며,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청년 세대에게도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운동이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 정책의 출발점을 설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며,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시혜적인 접근과 투자의 개념에서 벗어나 청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목소리내고 또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지를 고민해나가야 한다.

## 7. 함께 꿈꾸며, 함께 자람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오늘날 청년들은 제각기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다. 현 세대를 비판하고, 다 함께 안녕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숭고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문제는 그 힘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각자의 발버둥 침이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쉼이 모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사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또 작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나름의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이고자 한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과학과 논리에 기반 하여 우리 청년 세대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 힘쓴다. 인간과 인간의 삶을 존중하는 국가의 운영원리로서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그 기저에 깔린 이념과 사상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 일원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일깨우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즉,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함께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한다. 함께 꿈을 꾸며 더불어 각자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서로 복돋고 응원하는 것, 앞으로 살아가갈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자라나는 것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주요 과업으로 삼아 착실히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sup>38)</sup>

38) 참여연대 복지동향 <동서남북>에 실린 글에서 발췌, 재구성하였습니다.

# Again,

독일청소년운동

# Youth

홍문기 박사

# Movement

## 독일 청소년운동

홍문기 박사

### 1. 청소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청소년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현장은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청소년이 연대하여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18세까지의 선거권 확대는 정치권의 관심분야이다. 다른 흐름은 각 도시마다 어린이 혹은 청소년친화 도시 만들기가 학계와 현장에 새로운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다. 학계는 끊임없이 아동친화도시 혹은 청소년친화마을 만들기에 경쟁이라도 한 듯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현장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에 뒤질세라 어린이, 청소년이 주도하는 자치동아리 혹은 역량부여를 통한 주도성 청소년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한국의 아동청소년복지 발전과정이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에서 왜 의미 있는 운동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더 있다. 공공영역의 주도적 참여이다. 이른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운동이 한국 지자체에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 완주군을 필두로 하여 군산시, 전주시, 김제시 등이 아동친화도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지자체 주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과정은 참정권과 청소년자치권 확대와 더불어 대단한 시너지를 불러일으킨다. 지금까지의 청소년운동 패러다임은 민간주도로 이끌어졌다. 민간 청소년운동은 때론 치열하고, 때론 목소리를 높여가며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홀로의 길을 홀롭게 완성해왔다. 허나 그 길은 투쟁의 길, 불협이 길이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운동은 새로운 양상을 띤다. 어린이와

청소년 사안이 다른 현안에 비해 지자체장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다. 지자체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구조와 체형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도시계획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청소년정책을 의무적으로 사전사후 평가하는 영향평가, 아동청소년정책의 컨트롤타워역할의 전담기구 편성, 아동청소년 정책영역을 감시하고 시정권고하는 옴부즈만의 역할, 그리고 환경, 교육, 영양, 보건, 안전 등의 실로 방대한 분야의 아동청소년 권익을 위한 지자체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그 추진배경에는 지자체 장의 소위 업적쌓기나 인증도시 마케팅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가 확대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인 아동청소년의 친화환경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청소년운동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이는 지자체의 독단적 추진과 논의없는 보여주기식 인프라 구축 사업이 아닌 민관, 그리고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진정한 소통을 구심점으로 한 상생이 있을 때 가능하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민간의 활동으로 주도되었던 청소년운동이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민간이 주도하였던 흐름에서 공공영역의 참여는 시너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그간 아동청소년 권리의 최후보류였던 보호영역에 머물러있던 차원에서 참여·활동·예방으로 청소년 현상이 변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하여 지역사회나 정책에 참여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역정부 시스템이 만들어져간다. 서로가 대화하며 함께 갈 길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상생의 운동이다.

세 번째는 예방적 차원의 논의가 확대되었다. 아동청소년은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프로세서가 필요하다. 특히 보편적, 예방적 차원의 지원체계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이 동등한 환경과 위치에서 함께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1월 16일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어느 지자체장이 제시하였던 청소년수당을 비롯하여 아동전용 보건소와 어린이극장 등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동등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무차별의 원칙에 한걸음 더 나아간 결과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운동은 현재 상승주이다. 청소년들의 의식향상, 학부모의 관심상승, 민간에서의 청소년활동분야 확대, 지자체와 정치인의 관심증폭 등이 새로운 청소년운동의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과연 청소년이 진정 원하는 것, 한 인간으로서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포퓰리즘이나 사회적 분위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지속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운동의 진정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운동의 방향성과 가치를 독일 청소년운동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독일에서의 청소년운동은 어떠한 방향성과 가치에 대하여 고민하였던 것일까? 그리고 그 결과로 독일은 청소년에게 어떤 사회가 주어졌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독일 청소년운동의 여행을 시작해보고자 한다.

## 2. 독일 청소년운동의 요체

18세기 영국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유럽은 새로운 산업구조를 구조화하였다. 독일은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은 감이 있었지만 19세기 초 산업혁명의 종소리는 중반에 본격적으로 울리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들어 독일은 일약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산업국가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1,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에 경제구조 변화로 지식적 노동자는 불가피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된다. 독일도 다를 순 없었다. 지식적 노동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독일의 대학교육은 팽창하게 되었고, 70%의 인구가 대도시로 밀집하면서 단시간 내 핵가족 구조로 변모하게 되었다. 공급량의 확대는 인력난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자녀를 가진 여성, 그리고 어린이까지 공장에서 노동자로 취급을 받았다(Diskowski, et al., 2008: 18)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기존의 방식과 생활양식 등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청소년지위는 어떠한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시기에 청소년개념이 태동하였다. 태동한 이유는 청소년운동에서 시작된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문화적 틀과 산업구조에 맞는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억압적 교육, 전통적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 절하, 자본주의의 실용주의와 물질주의 우선시 경향, 학교

에서 감성을 무시한 합리성 강조와 경쟁체계 몰입, 그들을 교육하는 지도자의 권위적 태도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압력은 사회변혁시기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숨막히게 하였다. 루소나 페스탈로치 등의 다양한 교육학자나 사상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청소년의 주체적·의지적 존재로써 자율적인 의사결정 결여와 미성숙을 주장하였다. (김철, 2009: 6) 문명화에 맞서, 그리고 기성세대의 권위와 억압에 맞서 출발한 것이 독일 청소년운동의 시초라 볼 수 있다.

19세기 말 청소년운동이 태동하였다. 베를린 근교 Steglitz에서 Herrman Hoffmann은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도보여행, 자전거여행을 조직하면서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산업화, 도시화로부터 벗어나 자연친화적 삶을 추구하는 초기 청소년운동은 기성세대의 질서에 평화적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1896년 동아리 활동가인 Herrmann Hoffmann의 뒤를 이어 1901년에 Karl Fischer는 구체적 목표를 내걸고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운동조직을 정비하게 된다. 이후 독일을 대표하는 청소년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유럽각국으로 청소년운동의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최초 독일 청소년운동은 Wandern(반더른:도보여행)과 Vogel(포겔:새)의 의미를 합쳐 Wandervogel(반더포겔: 철새)로 불려졌다. 철새처럼 산이나 들판 등의 자연을 스스로 돌아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통한 인격형성 수양이 주 목적이었다. 청소년이 알지 못하는 낯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였다. 여행을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해야 하므로 인격적 성숙을 꾀할 수 있었다. 더불어 삶에 대한 성찰과 토론이 진행되고 서로의 대한 인생고민이 시작되었다. 인생고민은 자연스럽게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핵심활동으로 매주 도보여행을 하기 위한 준비모임과 도보여행, 여행 중 자연에서 감흥을 받은 느낌을 자유롭게 시와 에세이, 그림이나 노래로 표현하였다. 지역 민요를 모아 발매하거나 사진을 찍어 사진전을 열기도 하였다.

태동당시 청소년운동은 권위적인 집과 학교를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려는 청소년의 활동이었다. 실생활은 집이 있는 도시에서 보내고, 주말과 휴일, 방학에만 그룹을 지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공동체생활을 하였다. 활동자체에서만 보면 자연친화적 문화운동으로 사회개혁을 담은 투쟁적 청소년운동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청소년운동은 전국적 차원의 투쟁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김철, 2009, p6) 지도자인 피셔는 반더포겔을 협회로써 공식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찬반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기반인 부모나 교사, 시민 등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지체계를 확보하였다. 1913년에 전체 반더포겔의 회원수는 약 60,000명에 육박하였고, 시민위원회는 약 5,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사지원, 2012, p.209)

반더포겔 협회는 1913년 10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중부도시 카셀에 위치한 마이스너(Hohen Meissner)산에서 총집결하여 청소년의 가치와 강령을 채택하였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이 스스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주체로 인식될 것을 기성세대에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양심에 바탕을 두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책임감으로부터 행동하고 새로운 인생을 형성한다는 취지문을 선택했다.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공개적 촉구는 청소년들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청소년복지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지원, 2012, p.209; 윤여찬, 2004, p.9)

베를린 근교 소도시에서 시작한 소규모의 청소년동아리 활동이 빠른 시기에 청소년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의외로 질문의 답은 간단하다. 청소년모두가 공유하고 움직여야 만하는 공동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산업화, 도시화라는 물질주의, 자본주의 앞에 청소년들의 인성, 문화, 공동체는 무시되었다.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를 만들기 위해 이미 갖춰놓은 교육체계와 틀을 강요받았다. 기성세대의 권위와 청소년들의 자율성 박탈은 기성세대의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노예수용소'로 인식되었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새로운 방향을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경쟁과 성공의 문화에서 찾기보다 자연을 벗삼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여 삶이 청소년에게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개인적' 시도들은 조직적 차원으로 변모하였다. 기성세대가 제시한 구태한 문화에서 청소년이 주도한 신문화는 청소년운동의 방향성을 일깨워주는 일약 슈퍼스타가 된 것이었다.

청소년문화를 새롭게 창출하고자 한 청소년운동은 페스탈로치나 루소 등의 사상가의 주장과 더불어 19세기 이후 청소년의 인식을 자율성을 지닌 존재, 개별

성을 갖춘 인격체로서의 인식전환에 힘을 더하였다. (Cunningsham, 2006, p.120; Fegert et al., 2010, p.25)

청소년운동의 한계도 발생하였다. 당시 여학생과 유대인의 청소년운동 동아리에 입단허용문제가 붙어졌으며, 몇 개의 청소년운동의 지도자들은 각자의 나름대로 자율성과 논의를 거쳐 수용하기도 하고, 수용하지 않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청소년운동이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붙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단체가 권위적, 수직적 체계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으며, 동성애나 흡연, 음주나 미혼모 등의 사회문제도 확대되었다. 추후 이 동아리는 히틀러 청년단으로 흡수되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갔다.

### 3. 청소년운동과 도전

독일 청소년운동은 산업화의 기계문명과 자본주의에 맞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청소년들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가치를 부여하며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나갔다. (김철, 2009, p.17) 운동 속에 자립적인 협동과 인내로 세상과 맞설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황폐해진 마음을 치유하였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인간존재의 의미, 문명주의에 반한 자연주의 등을 토론하였으며, 주체적 결정, 독립심, 자율성, 역동성과 창조성 등을 추구하게 되었다. (사지원, 2012, p.211)

이러한 청소년운동의 확고한 방향성이 청소년을 모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태동 당시 청소년 철세운동은 삶을 되찾기 위한 자아실현 운동이었으나, 전국적 조직차원으로 발달한 이후 사회적 차원에 역점을 두었다. 청소년이 주도가 되어 기성세대 문화에 반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게 된 것이다. (김철, 2009, p.17)

독일 청소년 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방식에 항거의 표현이었다.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를 거부하고, 전통적 공동체적 삶을 추구했다. 둘째, 교육의 변화를 요구했다. 강압적 주입식 수업방식에서 흥미와 참여를 토대로 한 교육공동체를 원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자유로운 배움에 대한 성장과 욕구충족, 청소년에 맞는 환경조성, 삶의 유용적인 것과 실천적 지향의 수업, 수업원리로 관찰과 창의력, 도덕교육 등을 추구하였다. 셋째는 개인적 특성, 책임성, 자주성을 지닌 존재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청소년지위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김철,

2009, p.24)

청소년운동 속에 청소년들이 추구했던 방향성은 첫째, 기성세대의 종속물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청소년은 스스로 자율적 사고를 가지며 스스로의 선택적 책임에 의해 삶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청소년은 역량을 가진 주체적 존재인 것이다. 둘째, 기존의 물질적, 실증주의적 인간상이 청소년의 인간상을 훼손할 것으로 보았다. 경쟁보다는 협력과 상생을, 입시보다는 삶의 의미와 흥미로운 활동, 삶의 유용한 것에 대한 배움을 추구하였다. 셋째, 기성세대나 사회이슈에 대한 비판능력을 쌓고 훈련하였다. 미디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능력을 키우기 위해 사색과 토론문화를 주도하였다.

이제 한국 청소년운동을 고민할 시점이다. 청소년운동은 왜 필요한 것일까?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청소년복지법에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을 가진다. 하지만 국가가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준은 법이다. 하지만 국가는 누구이며, 법은 누가 만드는가? 국가는 실체 없는 존재이며, 법은 인간이 만든다. 인간은 사회적 인식아래 법을 만들고 국가가 해야하는 일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 여기에 운동이 가지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 운동의 인식과정은 국민과 법을 만드는 사람의 인식수준에 갯대를 대어준다. 청소년운동이 중요한 이유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인식수준과 사회적 기준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운동의 올바른 방향성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정건희 소장은 진정한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의 시민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기 삶과 환경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수단에 불과하며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공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즘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청소년들의 시민성 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진행하였다. 사회분열이나 포퓰리즘에 아닌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였다. 청소년들은 어떠한 지역성이나 정파와 관계없이 독립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워나갔다. 더불어 획일적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다양성을 중점에 두었다. 사실이 틀리



더라도 틀린대로 말할 수 있는 환경과 표현의 자유를 가장 높은 기치로 내세웠다. 더불어 인생에는 하나의 정답이 아닌 다양한 해답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으로 탄생하였다. 현재 독일정부,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학교수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자각시켜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정치리더십과 민주시민 역량에서 나옴을 선포하고, 논쟁의 접근방식, 정치교육을 위한 근본적 토대를 세웠다. 1976년에는 정치교육의 방법론으로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을 체결하고, 1. 강압이나 교화, 주입식 교육금지, 2. 논쟁 지속 3. 이슈에 대한 관찰 및 해결능력 배양을 시키는 것을 독일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 4. 나가면서

독일에서 유학시절, 꽤 젊은 나이에 유학나온 친구들을 가끔씩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20살이 다 채워지지 않은 설익은 나이에 독일에서 유학을 보내는 청소년들이다. 부모를 따라 어린나이, 혹은 청소년시기에 유학하는 친구도 더러 볼 수 있다. 처음에 이들을 만나는 느낌은 부모를 잘 만나, 혹은 가정이 부유하여 어린 시절에 유학을 나왔고, 공부를 하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였다. 독일에 오래 사신 분의 이야기이다. 비교적 어린 시절에 홀로 유학을 나와 몇 해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보면, 그의 몸은 성장하지만 내면은 늘 18살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늘 입시나 공부에 시달리고, 경쟁과 외국어로 인한 긴장감을 한순간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날마다 홀로섬의 고난?은 더 강한 자아를 형성하기도 한단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열여덟은 인간으로써 추구해야 할 안정감과 행복감, 사회성이 훼손되어진다. 혼자지내는 시간으로 자아도 함께 성장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건 그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사는 청소년들도 같은 맥락이다. 아무리 많은 청소년활동과 참여공간을

만들어도 정작 그것들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마음에 여유와 활동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루종일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교육틀 속에서 살다가 이쯤있는 대학교에 진학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일까? 정말 행복한 것일까?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잘 살고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계속 부추기는 이유는 뭘까? 기성세대의 틀 속에 살았던 한국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만 21세의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승승장구했던 우병우 수석논란과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통계 데이터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이제는 참정권 혹은 청소년친화마을 운동과 더불어 청소년이 주도하는 진정한 청소년운동이 필요할 때이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틀을 변화시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얼마 전 완주군 어린이의회 본 회의에서 어린이의원이 5일중에 3일만 학원을 갈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이 제도 꼭 만들고 싶다.

독일 교육에 이런 말이 있다. '스스로 하게 하라 machen sich selbst.' 이제 기성세대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당신이 답할 차례이다.

## 참고문헌

- 김미경 (2009). 한국과 독일의 정치교육 비교.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교회문화연구 제15-1호. pp. 33-64.
- 김철 (2009). 독일 청소년운동의 현황 및 교육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연구. 12(2). pp. 5-35.
- 사지원 (2012). 20세기 전환기에 독일 청소년운동: 반 문명운동. 독일어문학 56권. pp. 201-221.
- 윤여찬 (2004). 외국과 한국의 청소년운동비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희 (2011).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운동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 청소년운동을 통한 21세기 한국사회 변혁의 가능성 탐색. 청소년학연구. pp. 349-382.
- 정건희 (2009). 청소년시민참여지도론. 정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 워크숍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 13-S29.
- Cunningham, H., (2006). Die Geschichte des Kindes in der Neuzeit. Duesseldorf.
- Diskowski, D., Pesch, L., (2008). Familien schuetzen Kinder schuetzen. Weimar und Berlin.
- Fergert, J., Ziegenhain, U., & Fangerau, H., (2010). Problematische Kinderschutzverlaeuft. Weinheim und Muenchen.